



코스피 2175.54 (+20.47)	코스닥 663.44 (+8.13)
금리 (미국 3년) 1.33 (+0.05)	환율 (원-달러) 1166.40 (-5.70) (7일)



[산업]
구자열 LS회장
신임 임원들에
모험가적 리더 주문
06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계를 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경제활력 되찾고 공정사회 느끼게”

文 대통령, 경자년 신년사

좋은 기업투자 환경 위해
투자 인센티브 더욱 강화

‘부동산 투기 전쟁’ 선포
서민 주거 보호에도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 국정운영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며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집권 4년’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약속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혁신·포용·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기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해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것은 올해 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로 2.4%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 예상치 2.0%보다 0.4%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회복 전망은 올해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폭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경자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평화경제 비전으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관광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정의선의 현대차, 비행체로 모빌리티 선도

CES 2020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 ‘미디어데이’
개인항공기 2028년 상용화 목표
국내·외 동시 상용화 추진 계획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전망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CES 2020’ 미디어데이 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UAM 상용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2028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MIF) 2019’에서 2029년부터 개인항공기(PAV) 상용화 서비스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밝힌 상용화 일정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UAM을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UAM은 ‘개인용 비행체’(PAV·Private Air Vehicle)를 기반으로 하는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현대차 미디어데이 뉴스 컨퍼런스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새로운 이동 통로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현대차는 이날 미래 모빌리티 비전 구현을 위해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허브(모빌리티 환승 거점)를 제시했다. 또 PAV(개인용 비행체) 컨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UAM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같이 할 계획”이라며 “법

규나 제도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사와의 비교해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말할 수 없다”면서 “각자의 전략이 있어 4~5년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단정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파트너들과 협력도 하고 있다”며 “더 훌륭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더 편하고 고객에게 편한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UAM에 대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현대차 미디어데이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UAM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를 UAM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해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드론 교통과를 신설한 바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ysw@



겨울비 내리는 날 전국에 겨울비가 내린 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풍선효과… 非규제지역 아파트 경쟁률 신기록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규제정책을 쏟아내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도권 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도금 대출한도가 여유롭고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등 전방위 규제를 담은 12·16 대책을 내놓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분양한 경기도 안양(아르테자이 32.4대 1)과 안산(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19.65대 1), 수원(하늘채더퍼스트 88.16대 1) 등의 새 아파트 청약에서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청약경쟁률은

높았다. 비규제지역이란 점이 수요자들에게 투자 매력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비 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고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유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

올해 전국 첫 마수결이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동양건설산업의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는 지난 3일 개관 후 주말까지 3일간 4만여 명이 몰렸다. 개관 첫날인 지난 3일 8000여명을 포함해 주말 3일간 4만여 명이 다녀갔다. 이 아파트는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7

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코오롱글로벌이 수원 권선구에서 분양한 수원 하늘채더퍼스트 1단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88.16대 1, 2단지 경쟁률은 평균 42.8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무순위 청약에는 14가구 모집에 7만1222명이 몰려 50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청약이란 1·2순위 청약 이후 부적격 처리된 청약자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뜻한다.

<2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964@

퇴직연금 가입자·적립금 늘었지만

수익률 1%대... 잠자는 개선법안에 국민 노후 '불안'

가입자 600만, 적립금 190조 돌파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등
'수익률 제고' 발의법안 국회 계류
"개선책 통해 노후 보장 강화해야"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은 '연 1%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세간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실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늘는데 수익률은 '뚝'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었다. 총 적립금액은 지난 2017년 보다 13% 늘어난 188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분기를 기준으로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 규모 1위는 신한은행(19조7520억원)이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상위 20곳〉
(19년 6월말 기준/단위: 억원)

순위	퇴직연금사업명	적립금
1	삼성생명보험(주)	246,888
2	(주)신한은행	197,520
3	(주)국민은행	179,053
4	중소기업은행	144,179
5	(주)하나은행	135,145
6	(주)우리은행	120,896
7	현대차증권(주)	115,371
8	농협은행(주)	108,616
9	미래에셋대우(주)	90,297
10	교보생명보험(주)	64,744
11	삼성증권(주)	58,653
12	한국산업은행	56,757
13	한국투자증권(주)	48,304
14	한화생명보험(주)	40,918
15	삼성화재해상보험(주)	38,336
16	미래에셋생명보험(주)	36,968
17	엔에이치투자증권(주)	27,668
18	(주)KB손해보험	27,032
19	신한금융투자(주)	23,919
20	근로복지공단	22,902

차지했다. KB국민은행(17조9053억원), IBK기업은행(14조4179억원), KEB하나은행(13조5145억원), 우리은행(12조89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 1위는 현대차증권(11조 5371억원)이 차지했다. 그 이후로는 미래에셋대우(9조297억원), 삼성증권(5조8653억원), 한국투자증권(4조 8304억원), NH투자증권(2조7668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업계 1위는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보험(24조6888억원)이,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3조8336억원)이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높은 적립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변변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신한은행(1.83%), 현대차증권(1.46%), 삼성생명(1.92%), 삼성화재(1.95%)가 모두 1%대 수익률에 그쳤다.

저조한 수익률로 중간에 퇴직연금을 갠 사람도 2018년 기준 7만명을 넘어섰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근로자는 지난 2017년 전보다 약 38% 증가했으며, 인출금액은 2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수익률 개선안 나왔지만...국회 무관심에 법안 '표류'

지난해 10월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을,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디폴트 옵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생 법안조차 줄줄이 계류되면서 법안 통과와 동력 또한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은 노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탁법인은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되고, 근로자 대표가 설립에 참여해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수탁법인은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로 떨어진 반면, 수수료는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면서 가입자들의 체감 수수료를 높였다.

수탁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맡으며, 법인의 이사진은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을 동수로 뒤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디폴트 옵션은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한 방법으로 상품이 자동 선택·운용되는 방식이다. DC형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 옵션을 설정한 가입자에게 옵션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혼란을 방지한다.

한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의 무관심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노후 보장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 시키므로 개선책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노란 발자국에서 멈추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에서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노란 발자국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경상수지 60억달러, 7개월 연속 흑자행진

수출보다 수입 줄어든 '불황형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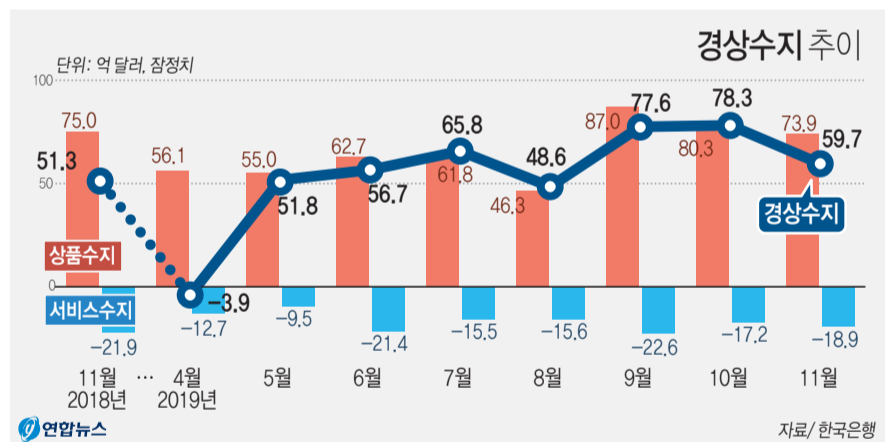
한은, 지난해 11월 국제수지
상품수지 74억달러 흑자, 1.1억달러 ↓
수출 465억달러 전년비 10.3% 감소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0억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 기조는 뚜렷해진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9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9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규모도 지난 2018년 11월(51억 3000만달러) 대비 8억4000만달러 늘어나 지난해 2월 이후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상수지 개선 흐름에도 상품수지(수출-수입)는 줄어 들었다. 지난해 11



월 상품수지는 73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75억달러) 대비 1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10월(80억3000만달러)보다도 줄었다.

문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46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째 내림세다. 수입도 391억

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량, 제조업 위축,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수입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위주로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10분의 1 토막

이태규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불공정행위 과징금 총액 25% ↓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지난해 대기업 부과 과징금이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감소했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건수는 40억8800만원, 29건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전체 부과액 390억5100만원, 10건보다 89.5% 줄어든 수치다. 이 의원실은 지난해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

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원(335건)으로 전년 3873억4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과징금 실적으로 공정위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순 없지만, 김 전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간 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해와 맞물려 과징금 부과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분양가 규제에 로또 청약 기승"

>> 1면 '풍선효과...'서 계속

또한 수원 팔달구 팔달6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2019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인 12월 19일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51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8.36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안산 청약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다. 최근 분양한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

포레는 248가구 모집에 4873명이 접수하며 평균 19.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존 안산 지역 최고 경쟁률인 그랑시티자이(2017년 6월)의 9.43대 1을 2배 이상 넘는 수준이다.

안양아파트 시장 역시 뜨겁다. GS건설이 안양시 만안구에서 분양한 아르테 자이는 343가구 모집에 1만1113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3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한 두산건설의 안양 예술공원 두산위브

는 45.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역 최고 경쟁률 기록을 세웠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후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는 수요자가 많아 상한제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에 향후 새 아파트 공급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30만 가구가 넘는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그 중 수도권은 19만8503가구, 이 중 경기도 물량이 9만5414가구로 가장 많다.

/정연우 기자 ywj964@

새 항법·수직이착륙·충전시스템... 도심 비행체의 신기원



‘개인용 비행체’는 어떤 콘셉트?

우버와 개발한 ‘S-A1’ 첫 공개 전기 추진 방식으로 5명 탑승

자율 비행가능기술도 개발키로 저소음, 안전, 편의성 확보 초점 도심항공모빌리티로 비행 대중화

현대차가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모델을 개발했다.

현대차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CES 2020’에서 우버와 함께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PAV) 콘셉트 모델 ‘S-A1’을 처음 공개했다.

실물 크기로 전시되는 S-A1은 전기 추진 방식으로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다. 조종사 포함 5명이 탑승 가능하며 상용화 초기에는 조종사가 조작하지만, 자동비행기술이 안정화하면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우버에서 에어택시를 추진하는 우버 엘리베이트의 에릭 엘리스 총괄은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에서 우버의 첫 번째 파트너라며 “고객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비행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훌륭한 품질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엘리스 총괄은 “현대차의 제조 역량과 우버의 기술 플랫폼이 합쳐지면 도심항공네트워크 구축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우버 등 다양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최고 수준의 PAV 개발과 플릿(운송사업자에 대량 공



현대차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모델 ‘S-A1’에 쏠린 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현대차 미디어데이 뉴스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S-A1’ 모형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 서비스·유지보수, 이착륙장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S-A1의 실제 비행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관 바닥에서 2.2m 높이에 설치하고, 프로펠러가 구동되는 장면을 연출한다. 또, 가상현실 체험 공간에서 S-A1에 탭을 때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용 비행체(PAV)는 현대차가 추진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기반이다. 전기추진 기반에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PAV를 활용해 활주로 없이 도심 내에서 이동하며 지상의 교통정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UAM의 비전이다. UAM은 PAV에 더해 새로운 항법, 이착륙장, 충전체계 등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UAM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행의 민주화’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이기도 하다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다. 지금은 전자기 등으로 극소수만 수요에 따른 하늘길 이동을 누리지만 UAM이 이를 대중화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역동적 도시구현을 위해 첫 번째 솔루션으로 UAM을 제시했다.

도시화로 장시간 이동이 늘고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이동성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 혁신사업으로 꼽힌다.

현대차 UAM 사업부장 신재원 부사장은 “이제 우리는 도심 상공을 열어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있다”며 “UAM은 교통혼잡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대차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PAV 프로펠러 하나에 이상이 있어도 문제 없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비상상황 대비한 낙하산 전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도심의 소음 문제를 악화하지 않기 위해 저소음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자끼리도 대화를 원활하게 할 정도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완성차 제조업체로서 노하우를 이용하기로 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하거나,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경량화, 생산성 있는 설계 기술, 운영비 절감 등으로 접근 용이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 디자인은 승객 중심의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UAM이 허브를 통해 목적지반모빌리티(PBV)와 긴밀히 연결돼서 ‘끊김 없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차가 제시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업계에서는 2023년경 PAV 시범단계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현대차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자동차가 50%가 되고, 30%는 PAV,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안에서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부회장은 또 지난해 9월에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과 만나 “비행 자동차(완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5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상용화될 수도 있다”며 UAM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도심항공 부문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신재원 항공연구총괄본부장을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신 부사장은 항공안전과 항공교통 관제기술 분야 전문가로 단순히 항공기체 개발에 머물지 않고, 항공 인프라와 항공 관제 체계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 관점에서 UAM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됐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우버와 함께 개발한 현대차 개인용 비행체(PAV) 콘셉트 모델 S-A1. /현대차

“병원·카페 등 이동중 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핵심은 ‘삶의 공간’”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 PBV 연구개발 방향 발표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는 탑승객이 이동 중에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엽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장(전무)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CES 2020’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미래도시 구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인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이동수단)와 허브(Hub·이동수단 환승거점)의 디자인 연구개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PBV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수용이 가능한 개인화 설계 기반 도심형 친환경 모빌리티를 추구하고 있다. 카페나 병원 등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동 중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 전무는 “전 세계에서 5번째 교통 혼잡하고 도시화로 많은 주거 이슈가

美 샌프란시스코 케이블카서 영감 개인화 설계로 단순 운전공간 초월 PBV, 허브와 연결되면 공간 ‘무한’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설계를 시작했다”며 “PBV는 버스같은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승용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의 기술 진화를 통해 운송 개념에서 라이프 스타일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도심에서 50km의 속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누비는 케이블카에서 PBV의 콘셉트적으로 영감을 얻었다. 이 케이블카는 샌프란시스코만의 매력 있는 대중교통으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 센터장이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 도시 곳곳을 즐길 수 있다. PBV가 증가하면 도시의 느낌도 완벽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차량 내부는 운전자의 공간보다 생활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개인화 설계가 반영된 PBV는 도심

서를 기능을 비롯해 여가 공간은 물론 사회에 필수 시설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b는 하늘의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과 지상의 PBV를 연결하는 중심점이자 PBV와의

연결을 통해 무한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혁신적 커뮤니티다.

이 전무는 “라면집, 카페, 빵가게의 목적성을 지닌 PBV가 허브에 도킹되면 푸드코트가 되는 것이고, 치과, 내과 등이 도킹되면 병원이 될 것”이라며 “여러 상점들이 도킹되면 쇼핑몰, 생활공간 시설들이 도킹되면 에어비엔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V와 허브를 함께 디자인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모빌리티가 있어도 고객이 친근하고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무는 이날 현대차가 올해 출시하는 신형 투싼과 아반떼의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전무는 “새로운 디자인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현대차는 좀더 진보적인 캐릭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다음세대 투싼을 보면 현대차의 디자인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지금은 경험의 시대... 인간 중심 기술로 스마트 시티 구축”



김현석 사장 기초 연설

개인의 요구가 모여 기술 혁신 라이프스타일 따라 공간 재구성 보안·프라이버시 최우선 순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안정, 즐거움 등 삶의 긍정적 경험을 기대한다. 이 같은 개인의 요구가 모여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소비자전 부문장)이 6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기초 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미래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삼성 CES 기초연설을 맡은 것은 2016년 당시 흥원표 삼성SDS 사장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세계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 고객사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그 열기를 실감케 했다.

김현석 사장은 향후 10년을 ‘경험의 시대’로 정의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사전 부스 투어에서 5G 기반 ‘디지털 콕핏 2020’이 관람객을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사전 부스 투어에서 삼성봇 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다.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사전 부스 투어에서 모바일 콘텐츠에 특화된 ‘더 세로’가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한 결합으로 개인에게 보다 최적화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다. 그는 “경험의 시대에는 다양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삼성의 인간 중심 혁신이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공인가 로봇인가...공모양로봇 최초 공개

김현석 사장은 무대에서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 ‘볼리(Ballie)’를 최초로 공개했다. 볼리는 공모양의 로봇으로 로봇치고는 작은 크기로 눈길을 끌었다.

“하이 볼리”라고 부르면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 가까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기초연설’에서 첨단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 ‘볼리(Ballie)’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고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한다.

또한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TV, 청소기 등과 연동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볼리에는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덕에 보안을 위한 시큐리티 로봇이나 피트니스 도우미 역할 등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김 사장은 “개인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볼리는 인간 중심 혁신을 추구하는 삼성전자의 로봇 연구 방향을 잘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뒤를 이어 무대에 오른 삼성리서치 서비스 부사장은 개인 맞춤형 케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AI 리더십과 업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카이저 퍼머넌트와의 협업으로 개발된 심장 질환 재활 프로그램 ‘하트와이즈’를 소개했다.

하트와이즈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만성 심장 질환 환자의 심장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전문 의료진의 적기 진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주거공간으로 개인 경험 확대...맞춤 생활 공간 창조

삼성전자는 AI, 5G, 증강현실(AR) 등 첨단 혁신 기술의 등장이 어떻게 개인을 둘러싼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젼스(웨어블 보행보조 로봇)’를 입은 사용자가 ‘AR 글라스’를 쓰고 가상의 개인 트레이너에게 맞춤형 피트니스를 받는 것을 시연했다.

시연자는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 동작을 하고 자세 교정을 받으며, 운동 결과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피드백 받는다. 또한, 실감나는 AR 영상을 통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히말라야 산맥과 물속에서 운동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주방공간에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의 진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IoT 냉장고인 ‘패밀리 허브’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짜서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레시피까지 추천해주고 ▲가정용 식물재배기가 키운 허브로 음식의 맛을 더하고 ▲AI 보조 셰프인 ‘삼성봇 셰프’가 요리과정을 도와 주는 등의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스마트 시티 구축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 추세를 언급하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삼성 넥스트의 에밀리 베커 전무는 “2050년까지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AI, 5G, 사물인터넷(IoT), 엣지 컴퓨팅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이 도시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빌딩, 교통, 커뮤니티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해 설명했다.

스마트 빌딩 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같은 문제 외에도 거주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에 대해 소개했다. 거주자가 음성 명령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하나의 앱으로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과 차량 출입 정보 확인 등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또한 ‘차량사물통신(V2X)’의 구현을 통해 자동차를 도시 전체와 연결하고, 스마트 기기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 연결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김현석 사장은 끝으로 “삼성의 기술은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며 “삼성전자는 개인이 더 안전하게 첨단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며, 착한 기술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128단 4D낸드 3세대 10나노 D램 반도체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주도



6개 분야 관련 반도체 솔루션 전시 일반 소비자용 SSD 체험 공간 마련 경쟁력 높은 제품으로 시장 변화 대응

SK하이닉스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반도체 기술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CES 2020에 ‘메모리 중심의 세상’을 주제로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방대한 데이터가 활용되는 미래도시를 형성화하고,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오토모티브 ▲사물인터넷(IoT)

T) ▲빅데이터 ▲5G 등 6개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반도체 솔루션을 전시했다.

SK하이닉스의 주요 제품은 안정성·속도·전력소모·용량 측면에서 우수성이 뛰어나다.

5G, AI 등 미래 4차산업에 두루 사용되는 HBM2E, 서버용 DDR5, SSD 등 메모리 솔루션과 차량용으로 최적화된 내구성 높은 LPDDR4X, eMMC 5.1 등이다.

아울러 5G 스마트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LPDDR5와 UFS, AR/VR과 IoT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CIS(CMOS 이미지센서) 등도 전시했다.

B2C제품인 PCIe NVMe 인터페이스 방식의 ‘일반 소비자용 SSD’도 처음 소개했다.

지난해 6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128단 4D낸드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으로, 지난해 8월 출시한 SATA 인터페이스 방식 SSD보다 6배 이상 빠르다.

일반 소비자용 SSD와 CIS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CIS 체험존은 방문객들이 부스에 전시된 스마트폰으로 본인을 촬영하면 CIS가 피사체를 인식하고 디지털이 미지로 전환해서 사진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직접 겪어볼 수 있게 했다. 회사 소개 코너와 반도체 상식 OX퀴즈 등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석희 CEO와 주요 임원들은 행사 기간 중 글로벌 유수의 칩셋업체, 데이터센터 및 디바이스 제조업체 등을 만



SK하이닉스가 CES 2020에 참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반도체 기술을 전시했다. /SK하이닉스

나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올해 128단 4D낸드 기반의 테라바이트급 고성능 낸드 솔루션과 3세대 10나노급 D램의 양

산을 본격 시작한다”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경쟁력 높은 제품들을 적기에 출시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IoT에 빅데이터·AI 기술 합쳐... 씽큐가 제품 관리



박일평 사장 프레스 컨퍼런스

엘레멘트AI와 '인공지능 발전단계' 美 겨냥 '프로액티브 서비스' 소개 DD모터 탑재 트윈워시 신제품 공개

LG전자가 현지시간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000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했다.

LG전자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캐나다 인공지능 솔루션업체인 엘레멘트 AI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발표했다.

LG전자가 소개한 인공지능 발전 단계는 ▲1단계 효율화(Efficiency) ▲2단계 개인화(Personalization) ▲3단계 추론(Reasoning) ▲4단계 탐구(Exploration)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LG전자는 특히 각 단계별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기준을 정의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1단계의 인공지능은 지정된 명령이나 조건에 따라 제품을 동작시킨다. 2단계부터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패턴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LG전자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박일평 사장이 '인공지능 발전 단계(Levels of AI Experience)'를 발표하고 있다.

을 찾고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다. 3단계는 여러 점점의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4단계는 인공지능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한다.

엘레멘트 AI 장 프랑스와 가네 CEO는 "오늘 발표는 인공지능이 향후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평 사장은 "LG 씽큐와 같은 인공지능의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해 산업 전반에 명확하고 체계화된 로드맵이 필

요하다"며 "올바른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딥러닝 분야 세계적인 석학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 겸 밀라연구소 창업자는 "우리는 개인과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며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제시한 LG전자를 지지했다.

◆AI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가전과 서비스 소개

LG전자는 인공지능 LG 씽큐로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가전 및 서비스, 올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LG전자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드 TV를 포함한 8K TV 신제품 등도 소개했다. 특히 LG전자는 올 3월부터 북미시장에서 본격 시작할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제품의 상태나 관리방법을 LG 씽큐 앱,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LG전자는 인공지능 DD 모터를 탑재한 트윈워시 신제품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의류 무게를 감지한 후 인공지능이 약 2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류 재질을 판단한다. 이어 드럼세탁기

는 LG전자만의 세탁방법인 6도션 가운데 최적의 모션을 선택한다.

LG전자는 프리미엄 TV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라인업의 8K TV 신제품을 선보였다. 8K 올레드 TV인 88·77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8K 뿐만 아니라 8K LCD TV인 75형 LG 나노셀 8K도 전시했다.

이들 제품은 국제 표준 기준과 미국 CTA(소비자기술회)의 '8K UHD' 기준을 모두 충족해 선명한 8K 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형올레드 #P올레드 #LCD 구조혁신... 1등 디스플레이 회사로

(플라스틱)



정호영 사장 기자간담회

올레드 TV용 패널, 차별적 가치 제공 미래 성장동력 대형 올레드에 '온힘' 특별 전시관 마련... 신시장 창출 적극 "LCD, 경쟁력 있는 제품만 집중할 것"

"과거에 누렸던 1등 디스플레이 회사의 모습을 명실공히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LG디스플레이 CEO 정호영 사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과 믿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 회사의 기술과 인재가 단연코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전략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면 과거 세계 1등 위상을 누렸던 시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사장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대형 올레드(OLED) 대체화에 주력 ▲플라스틱 올레드(P-OLED) 사업 경쟁력 제고 ▲LCD 구조혁신 가속화를 전략으로 내걸었다.

그는 "올레드 TV용 패널은 풍부하고 정확한 색 표현뿐 아니라 슬림한 디자인과 구부리고 돌돌 마는 등 다양한 폼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 디스플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정호영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팩터 등 차별적 가치를 제공한다"며 "현재 대다수 주요 TV 브랜드에서 하이엔드 제품으로 올레드 TV를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20만대에 불과했던 판매량은 2019년 300만대 중반까지 성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올레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올레드의 물량 확대뿐 아니라 올레드만이 갖는 장점을 바탕으로 제품 가치를 극대화하고 신규 시장과 고객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화이트 올레드와, 대형 올레드, P-올레드를 합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LG전자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가 열렸다. 각국 취재진이 '롤러블 TV'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쳐서 40%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CES 2020' 기간 중 고객사 전용 특별 전시관을 마련해 항공 등 새로운 산업군의 OLED 제품들을 선보인다. 올레드의 유연성을 활용해 항공기 벽면을 화면으로 채우기도 했으며, 평평한 TV 화면에서 인쪽으로 굽는 화면으로 전환되는 기술도 선보였다.

P-올레드 사업은 향후 성장 기회가 가장 큰 분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한다. 정 사장은 "모바일쪽 상황을 보면 상위 30개 회사가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등 향후 P-올레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가장 먼저 사업 기반을 안정화하고 차별화된 가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발전하며 자동차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화질과 응답속도, 무게 등 장점을 가진 P-올레드는 자동차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2017년 LED 판매 1조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장이 이어오고 있다. 정 사장은 "운송산업 전반에서 자동차, 항공에서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의 30%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동차 P-올레드는 올해 2분기 말이면 출시되는데 자동차 수주 이후 매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0% 매출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CD사업은 경쟁력 있는 부분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구조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정해나간다고 밝혔다. 그는 "IT, 커머셜, 자동차 등 LG 디스플레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게임에 특화된 고속구동 고화질 모니터, 터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 방향에 맞춰 LCD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에만 집중해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실적은 하반기 이후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러 문제들에서 P-올레드 물량 확보 이슈가 가장 큰데, P-올레드 물량을 확보한 캐파(사업역력)를 가동하는 여주와 광주 공장의 대형 올레드 양산과 판매시점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하반기 이후 좋아질 것이며, 상반기까지는 작년 하반기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광주 공장은 1분기 중으로 양산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시장에서 소개 중인 폴더블 노트북은 평평한 화면을 접으면 노트북 형태로, 퍼면 태블릿으로 사용 가능하다. 폴더블 폰에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던 노트북, 태블릿이던 우리 폴더블 구현할 준비는 다 됐다"며 "우리 고객의 고객들의 제품 전개 일정과 상품기획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동박·분리막·코발트... 배터리소재 확보 큰장 섰다



분리막 확보위해 LG전자와 힘 합쳐
폴란드에 배터리 분리막 공장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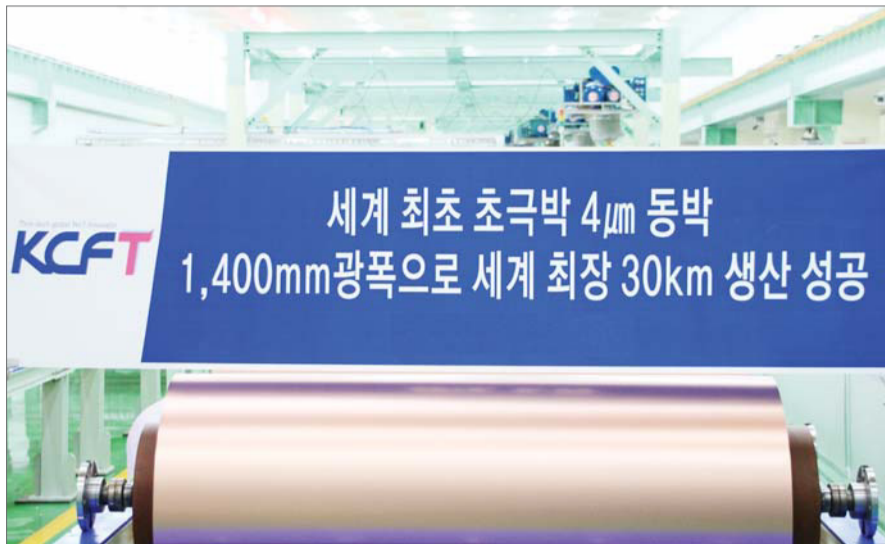
스위스 글렌코어사와 6년 구매계약
전기차 300만대 분량인 3만톤 확보



동박 제조업체 1위인 KCFT 인수
미래모빌리티 핵심동력 확보 차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앞으로 내연기관 대신 배터리를 원동력으로 삼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잇따라



KCFT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한 4마이크로미터 초극박 전지용 동박. /SKC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배터리 업체들은 늘어나는 수요만큼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박·분리막 등 소재가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내 관련업체의 '눈치싸움'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동박 제조

업체인 KCFT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SKC는 지난해 6월 인수를 공식 발표한 뒤 약 7개월 만에 KCFT를 100% 투자사로 맞이하게 됐다.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리막·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4대 핵심 소재가 필요한데, 동박은 구리를 고도의 공정 기술로 얇게 만든 막으로 2차 전지 음극재의 필수 소재 가운데 하나다.

SKC는 KCFT를 인수함에 따라 사업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2월 화학사업부의 물적 분할뿐 아니라 7일 KCFT 인수 마무리에 따라 화학 대신 2차전지 시장에서 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SKC의 영업이익은 2754억원으로 전망되는데 그중 KCFT의 기여도는 35%(969억원), 순이익 기여도는 49%(7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KCFT의 동박 생산 능력은 현재 연간 2만톤에서 내년 3월 기준 4.3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KC 관계자는 "사업방향성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쪽으로 전환하면서 강화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를 강화하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는 도중에 다양한 사업 중에서 특히 동박이 성장성 등을 봐서 SKC와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인수하게 됐다"며 "동박 시장이 워낙 수요가 올라가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성장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박사업을 인

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배터리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LG화학은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LG전자와 힘을 합치고 나섰다.

LG화학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데 LG전자가 해당 지역에 첫 해외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LG전자의 분리막 공급으로 배터리 생산의 안정성을 높일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표 배터리 업체인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의 대량 확보를 위해 스위스 글렌코어사와 계약을 맺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코발트 약 3만톤을 공급받는다. 이는 순수전기차 약 300만대 분량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의 전기차용 코발트 수요는 3만2000톤에서 2025년에 9만2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S의 미래는 글로벌에... 모험가적 리더 기대”

구자열 LS 회장 임원 만찬서 당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새해를 맞아 새 임원들을 만났다.

LS그룹은 구 회장이 6일 LS용산타워에서 올해 승진한 신입 임원 14명과 만찬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구 회장은 이날 “오늘 승진한 신입 임원들의 면면을 보니 그 동안 그룹에 심어왔던 글로벌 경영, 글로벌 인재의 씨앗이 조금씩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다”며 “LS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글로벌 시장에 있고, 여기 있는 신입 임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열쇠를 앞장서 찾아내는 모험가적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S그룹은 올해 해외 사업 담당 부문에서 신규 임원을 여러 승진시켰다. 앞서 구 회장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사업의 조직과 인력을 철저히 현



구자열 LS그룹 회장(왼쪽)이 신규 임원이 된 LS전선 박현호 이사(LSC법인장)에게 기념품을 선물하고 있다. /LS그룹

지화하고 해외 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2030 글로벌 비전’ 발표와 LS산전 조직 내 ‘글로벌 사업본부’ 신설 등도 같은 행보다.

구 회장은 아울러 임원들에 인코칭 홍의숙 대표의 ‘리더의 마음’과 이나모

리 가즈오 교세라 창립자의 ‘살아가는 힘’,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 등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구 회장은 2013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매년 신입 임원들과 자리를 마련해왔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시스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지난해 수주액 2조2000억원
연초 목표 7200억 초과 달성

한화시스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 2조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보다 67%가 증가한 수치다. 수주 목표보다도 72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8월 5500억원 규모 항공기용 피아식별장비 사업(IFF 모드 5)에 이어 12월에는

4700억원 규모 전술 정보통신체계(TICN) 등 대형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2200억원 규모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체계 개발 다기능 레이더 시제공급 계약 등 성과도 이어갔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달성한 방산 부문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무인 지능화 첨단 무기체계와 스마트 경계·감시 및 사이버 보안, 에어택시(PAV) 등 신시장 개척과 함께 글로벌 시장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새해 로밍 이용객 500명에게 경품 쏜다

LG유플러스 ‘U+제로 로밍’ 공기청정기, 상품권 등 증정

LG유플러스는 2020년 새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U+제로(제로 로밍하자) 로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2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 중 500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피자·커피 교환권, 해외로밍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의 ‘진행중인 이벤트’에 접속해 ‘U+해외로밍 제로와 함께 떠나고 싶은 여행 계획 세우기’를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경품 당첨자 발표는 29일 이벤트 응모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1월은 평시보다 U+해외로밍 이용객이 10% 이상 증가하는 성수기로 분류된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



공항 LG유플러스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있고 있다. /LG유플러스

가 있어 공항을 찾는 해외여행객은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앞선 지난해 9월 음성과 데이터 혜택을 대폭 강화한 ‘U+해외로밍 제로 요금제’로 로밍 상품을 개편한 바 있다. 지난 12월까지 4개월 만에 ‘제로 요금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데이터 사용량은 5배 증가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BMW 뉴 320d, 국토부가 꼽은 ‘2019 안전한 차’ 등극

BMW 뉴 320d가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 차량에 선정됐다.

BMW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시 ‘2019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케이엔캡)’에서 올해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케이엔캡은 정면충돌, 측면충돌, 보행자 안전성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신차 안전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뉴 320d는 올해 평가 차량 중 유일하게 전 부문 최고등급 안전도를 기록했다. ‘충돌 안전성’ 부문에서는 60점 만점에 59.69점, ‘보행자 안전성’과 ‘사고



예방 안전성’ 부문에서도 각각 20점 만점에 17.7점(88.5%), 17.4점(87.0%)을 얻었다. 측면충돌 및 기동측면충돌, 어

린이 안전성, 제동 안전성 등의 평가 항목에서는 모두 만점이었다. 총점은 96.29점이었다.

앞서 뉴 3시리즈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안전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유로엔캡에서도 별 5개를 획득했다.

BMW 코리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긴급제동장치(AEB) 기본 적용 계획에 적극 협조해, 올해부터 국내에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자동긴급제동장치인 ‘아이브레이크(iBrake)’를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

/김재용 기자

kt

“지니야 우리
민준이 칭찬해줘!”



“우리 **민준**이 치카치카 정말 잘하네!”

핑크퐁의 목소리로 우리아이의 바른 습관을 길러보세요



GiGA Genie × 핑크퐁

핑크퐁 칭찬하기

스마트한 칭찬 육아법

핑크퐁의 목소리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칭찬해주거나 타일러 줄 수 있는 기가지니 핑크퐁 칭찬하기

Copyright © Smart Study Co., Ltd. All Rights Reserved.

GiGA Genie

“올 경영 키워드 ‘L.E.A.D’... M&A 적극 추진”



박종복 행장이 지난 6일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은행업에 대한 인식 ‘새로고침’ 노력 필요

박종복 SC제일은행장 타운홀 행사

“변화의 바람이 거세고 도전과제가 클수록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지난 6일 새해맞이 타운홀 행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은행업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자 강조했다.

이날 박행장은 “5년 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은행을 만들자는 취지로 ‘뉴뱅크, 뉴스타트(New bank, New Start)’ 캠페인을 시작해 지금까지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최근의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와 닥쳐올 도전 과제들을 생각하면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넘어 은행업에 대한 인식 자체를 ‘새로고침(Reload)’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금융, 飛上 2020 전략

(2)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첫 행보로 콜센터 방문 고객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 실천 “ESG 기반의 경영체계 체화·확산”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2020년 새해 첫 행보로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의 콜센터를 방문했다. 고객 중심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KB금융의 미래 성장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춥고 매서운 겨울이 오더라도 고객중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KB의 웃음을 단단히 여미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차가운 대지 위에서도 우뚝서서 KB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는 의미인 ‘송백후조(松柏後凋)’라는 말처럼 어렵고 힘든 때가 되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 ESG 경영 선도해야”

올해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지난 3일 경기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KB금융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지난 3일 경기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윤 회장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Leader)가 될 수 있다”며 “임직원 모두의 이해와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KB를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윤 회장을 비롯한 12개 계열사 대표

L: 그룹 핵심경쟁력 강화

E: 사업영역 확장

A: 역동적·창의적

D: 고객중심 디지털 혁신

이사들은 모두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이 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신속히 체화하고, 더욱 확산하자”며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금융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경영전략 키워드 ‘리드(L.E.A.D)’

윤 회장은 2020년 그룹의 경영전략 키워드로 ‘L.E.A.D 2020’을 선언했다.

▲그룹 핵심경쟁력 강화(Level up the core) ▲사업영역 확장(Expansion)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KB 구현(Active & creative KB) ▲고객중심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customer centric) 등 4가지 방향을 뜻한다.

특히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그룹 포트폴리오 완성도를 제고하고, 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

다”며 “다양한 M&A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며, 신중하게 접근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수익원으로는 ‘마케팅’과 ‘마케팅인력’ 시장을 선점하고,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리브모바일을 통해 서로 다른 업종과의 협업 성공사례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조직개편, ESG 경영·글로벌 사업 방침

KB금융은 조직개편 역시 그룹의 협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부문 중심으로 강화했고, 글로벌 사업과 ESG 경영체계에 힘을 실어줬다.

우선 기업투자금융(CIB)과 자본시장, 개인고객, 보험 부문 산하에 총괄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총괄은 계열사 간 협업추진 등 사업부문장을 지원한다.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글로벌 부문을 신설했다. 계열사의 글로벌 사업을 그룹 관점에서 통합하고, 진출 지역에서의 계열사 간 협업과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ESG경영은 기존 사회공헌문화부를 ESG전략부으로 개편해 그룹 차원에서 강화한다. 주주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온라인투어 온라인투어 www.onlinetour.co.kr 상담문의 1544-3663

유럽 발칸 2국/동유럽 4국 9일 1,190,000~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2일 1,690,000~

베네룩스/프랑스 7일 1,290,000~ 동유럽 4국/2대 야경 8일 1,290,000~

동남아/홍콩/대만 보라카이/세일링보트/전신마사지 4/5일 448,000~

중국 장가계 천문산 4/5일 199,000~

게릴/양삭(체인호텔) 5/6일 399,000~ 상해/주자각(항주) 4일 219,000~

다양/호이안/바나산 4/5일 398,000~ 대양/후에/호이안/노트 4/5일 598,000~

호주/뉴질랜드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999,000~

미주/특수 하와이(관광+자유) 6일/7일 1,240,000~

코타키나발루/반딧불 5일 492,000~ 코타키나발루/넥스트리조트 5일 639,000~

삼시판 PIC리조트 골드 4일/5일 569,000~

일본 벵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249,000~ 오사카/나라/교토 3일 299,000~

한자에서도 지름에이하는 가사. 가이드정비 005로 표시상세내용은 일정표 참조 www.onlinetour.co.kr 여행상품 가격표명세: 유류비(항공기) ...

안철수·이낙연·황교안... 증시 널뛰기 '정치테마주' 주의보

안철수 전의원 정계복귀 선언에 '안랩' 주가 23.66% 뛰어올라 이낙연·황교안 테마주도 술렁 투자자 현명한 옥석가리기 필요



4·15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테마주부터 '이낙연 테마주', '황교안 테마주'까지 정치 테마주가 들쭉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철수 전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오는 4·15 총선 전까지 주식시장에 '정치 테마주'가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 분석이다. 당선 유력 후보 관련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개연성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현명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총선이 있었던 해의 코스닥 흐름을 살펴보면 연 초 4개월 동안 거래량이 유독 많았다. 지수 상승률은 낮았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테마장세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그해 1월 2일부터 선거 직후인 4월 15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약 414억주가 거래됐다. 그러나 선거 다음 주인 4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간 거

래량은 146억주에 불과했다.

상황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주요 테마주로 안착한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소재·부품·장비 등이 그렇다. 4차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되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AI 업종의 기세가 무섭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

람회인 CES와 맞물리며 여러 AI 관련주가 관심을 받는 중이다. 라온피플은 지난 6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일 대비 5.6% 상승한 2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부·장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대주전자재료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20%나 급등했다. 7일 전 거래일보다 0.59% 상승한 1만7100 원원에 장을 마감했다.

선거철마다 매번 반복됐던 정치 테마주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총선 주자로 예상되는 유력정치인과 관련된 업체의 주가가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테마주가 대표적이다. 안 전 의원이 창업한 보안업체 '안랩'은 지난 2일 전 거래일보다 23.66% 뛰어오르며 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안랩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씨니전자도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2년 만에 8만원 선을 넘겼던 안랩은 7일 전 거래일보다 3.80% 하락한 7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낙연 테마주', '황교안 테마주'를 찾는 투자자 역시 쉽게 볼 수 있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까지는 테마주 투자바람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 5번의 총선을 분석해보면 이전 3개월 동안 코스닥 거래대금이 총선이 아닐 때보다 높았다"며 시장에서 테마주 장세가 펼쳐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전 투자 전략으로 짧고 기민한 테마를 추천했다. 김 연구원은 "총선 전에는 해당 기간 부각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찾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AI, 2차 전기 장비가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가 높다"며 "관련 종목들 주가 퍼포먼스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동지역을 둘러싼 리스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코스닥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는 얘기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 투자로 수익을 챙기긴 힘들다"며 "업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합리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 상승요인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seoul.co.kr

'지하철 호재' 옥정·검단·운정 아파트 주목

옥정, 서울 7호선 연장사업 시작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분양
검단, 인천1·서울5호선 등 연장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분양
운정, 대화~운정신도시 연장 추진 '파주운정3금강펜테리움' 공급

새해 옥정(경기도 양주시)·검단(인천)·운정(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이곳은 모두 지하철 연장선이 닿는 곳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옥정신도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검단신도시 인천지하철 1·2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 운정신도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이 진행된다.

먼저 옥정신도시의 경우 지난달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도봉산~옥정, 15.3km) 연장 사업이 시작됐다. 해당 노선이 오는 2024년 완공되면 옥정신도

시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옥정역(예정)을 통해 3정거장 만에 서울에 닿게 된다. 강남구청, 학동, 논현 등 강남 주요 업무지구로도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진다.

옥정신도시에서는 ㈜유림E&C가 오는 2월 옥정신도시 A-20(1)블록에서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72~84㎡, 1140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예정)과 인접해 환승 없이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GTX-C노선 덕정역(예정)을 통해 삼성, 양재역 등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지난 10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발표로 인천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및 GTX-D 노선(예정) 등이 신설된다.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3개 정거장이 생긴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도 추진 중

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검단신도시~일산킨텍스)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단신도시에서는 동양건설산업이 이달 검단신도시 AA2블록에 이어지는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84㎡ 1122가구를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도 보편에 위치해 있으며 영어마을과 유치원 및 초, 중, 고교와 인접해 있다.

운정신도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이는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있다. 3호선 파주 연장선은 고양 일산동구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까지 7.6km 구간이 연장된다.

올해 운정신도시에서는 금강주택이 오는 4월 운정신도시 A32블록에 짓는 '파주운정3금강펜테리움(가칭)' 778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5G 통신장비 인증시장 80% 이상 점유

株라쿨라의 종목
기술 시험인증업체 [에이치시티]

"5G 시험인증 일괄 밀려든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7일 "정부 인증을 대리할 수 있는 시험인증 업체인 에이치시티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치시티는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품질보증실에서 분사된 회사다. 사업부문은 정부를 대신해 전자기기가 정식 출시되기 전 안전성 불량 기술검사 등을 진행하는 시험인증 부문(약 69%)과 각종 전자제품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신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정 부문(약 31%)으로 구성된다.

최 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유무선 통신망을 비롯해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장비도입까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운 장비도입을 위해선 시험인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

치시티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치시티는 지난 2018년 10월 국내 최초로 5G 국가지정 시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5G 통신장비 및 단말기 시험인증 시장 내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에이치시티 실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 해 출시되는 신규 모델의 개수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에 따르면 국내 5G 통신장비 종류는 지난해 초 272개에서 연말 578개로 1년 동안 112% 이상 확대됐고, 올해도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5G 장비는 4G장비보다 시험항목이 많고 소요기간도 최대 3~4배 이상 길다"면서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수수료와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한 2020년 에이치시티의 시험인증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이상 증가한 4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최 연구원은 추정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

'여의도 해링턴 타워 196' 오피스텔 분양

진흥기업, 전용 18.1㎡ 복층형

진흥기업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여의도 해링턴 타워 196' 18.1㎡ 196실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총 196실 규모로 지어지며 모두 전용면적 18㎡의 복층형이다.

해링턴 타워 196은 영등포역, 신길역, 여의도역에서 불과 7분 거리의 대로변에(옛 경원극장) 위치해 있으며, 영등포역 KTX 및 김포, 영종도 공항 진입이 용이하다. 전세대 복층구조로 루프가든, 공유스튜디오존 및 조식서비스, OA비즈니스편의공간, 공유차량 서비

스(일부 서비스는 유료)가 제공된다.

이 오피스텔의 장점은 교통여건이 꼽힌다. GTX-B노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에서 청량리는 35분에서 10분, 송도는 82분에서 27분대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신안산선 역시 여의도와 안산 한양대역을 100분에서 25분, 원시까지 69분에서 36분대로 좁혀진다. 또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 간 총 44.6km 구간을 쾌속 연결할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각 노선은 물론 소사원시선, 율곡관교선으로의 환승도 자유로이다.

여의도 업무지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대투자를 하려는 투자자와 향후 영등



'여의도 해링턴 타워196' 투시도.

포구의 개발호재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홍보관은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10 대립 아크로타워스퀘어 판매시설 13동 113호에(지하철 영등포시장역 2번출구)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신한금융, 얼터너티브투자 펀드展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얼터너티브투자 펀드展(展)'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얼터너티브투자 펀드展' 이벤트는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앱 '알파'와 홈페이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의 통합금융플랫폼인 '신한플러스'에서 온라인 공모 펀드를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주식, 채권을 포함한 선박, 항공기,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표펀드도 소개한다.

이번 이벤트는 생애 최초로 10만원 이상 신규 온라인 펀드 가입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최소 100만원이상 온라인 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은 10명, 3만원은 50명, 1만원은 100명에게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앱 '알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손업지 기자

규제·경기침체·저금리 3災... ‘모바일 앱’ 승패 좌우

2020 저축은행 전망

작년 ‘사상최대 실적’과 상반돼 IT시스템, 디지털 플랫폼 개선 등 사업규모 확장보다 내실에 집중

올해 저축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와 달리 각종 규제 도입과 경기침체,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축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이 도입한 오픈뱅킹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 도입 등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는 약 1조2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을 오픈하고 해외송금 업무 허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 완화 등 영업 규제가 개선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해는 가계대출총량규제, DSR 규제, 예대율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에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66개 저축은행을 한 곳에 SB 특독 플러스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통합 비대면 채널 서비스 ‘SB 특독플러스’ 이미지. /저축은행중앙회

있다.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연 24%에서 연 20%까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운영을 위한 상황은 좋지 않다는 평가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밝지만은 않다”며 “각종 규제도 입 영향과 경기침체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오픈뱅킹 등 디지털금융 경쟁 가속화로 저축은행의 경쟁력 약화에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보다 내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해 오픈뱅킹 시행을 앞두고 IT 경쟁력을 높여 자체 영업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오픈뱅킹은 휴대전화에 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만 깔면 모든 은행 계좌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폐쇄적이고 복잡한 결제 시스템을 버리고 핀테크 기술을 한 것 적용한 기술로 지난해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2금융권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또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체들 또한 자

체적인 IT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한창이다. 우선 66개의 저축은행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뱅킹 애플리케이션 ‘SB 특독 플러스’를 출시, 이후 ‘금리 노마드’ 현상에 힘입어 고객들이 대거 유입됐다.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 상품을 찾아 나서는 고객이 유입되면서 동시에 저축은행 정기예금 또한 대폭 늘어났다.

업체별로는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에 내놓은 사이드뱅크를 운영, 20~40대의 신규 고객이 주를 이루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애플리케이션에 빅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웰컴저축은행은 올해 자사 애플리케이션 ‘웰뱅’을 3.0버전으로 개선해 플랫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버전에는 고객 개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최근 웰뱅은 다운로드수 100

만건, 누적거래액 2조2500억원이라는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생활 금융 플랫폼 앱으로 ‘주거래 저축은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는 플랫폼으로서 웰뱅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모바일 뱅킹을 선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K저축은행은 그룹사에서 전 계열사의 디지털 서비스 구축,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술이 비대면 채널 서비스에 적용된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구축을 통해 저축은행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룹내부 전산서버까지 전체적인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JT저축은행도 오픈뱅킹 도입에 앞서 애플리케이션 베타 테스트가 한창이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앱 서비스 개발이 수익에 판가름할 것”이라며 “현재 개발은 다 완료된 상태이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JT저축은행의 앱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SPC·부동산법인 신용제한 IB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IB자금, 벤처·중소로 가게할 것 사모펀드 신뢰 회복에 노력할”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IB의 자금이 벤처·중소기업에 흐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IB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모험자본이 수익성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PF)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은 위원장은 “IB제도는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성장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입 취지와 달리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IB의 영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SPC와 부동산 관련법인을 IB신용공여대상의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해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권의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금융투자업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슈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자금이 자본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

자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금융그룹 사내벤처제도 도입 ‘혁신 DNA’ 키운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내벤처 제도인 ‘우리 어드벤처(A-D Venture)’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어드벤처는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모험심 강한 벤처집단을 의미한다.

우리금융은 올 1분기 중으로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업·신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작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운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우리 어드벤처 제도의 체계적 육성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가장 큰 한계와 약점으로 거론되는 금융회사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리스크 회피적 업무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을 포함한 전 그룹사 임직원이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하는데 있어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되되, 결과에 대한 실패는 용인함으로써 도전정신에 기반한 ‘혁신DNA’를 심을 계획이다.

소규모 자발적 혁신조직인 우리 어드벤처의 운영으로 스타트업의 장점인 신속한 실행력·개방형 혁신·도전하는 문화를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최소요건으로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빠르게 고객 반응을 측정해 다음 아이디어에 반영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신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국민연금, 대한항공 지분 확대... 한진家 ‘초진장’

주식 지분 9.90%→11.36% 늘어

내년 3월 열리는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을 늘려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기준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 지분이 종전 9.90%에서 11.36%로 늘었다고 공식했다.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전체 지분 가운데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52%, 이

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각각 6.49%, 6.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외에 주요 주주로는 ▲KCGI(강성부펀드) 17.29% ▲델타항공 10% ▲대호개발 6.28% ▲국민연금 4.11% 등이 있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림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는 국민연금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최근 한진가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과 달리,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며 총수 일가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주주들의 결정이 주목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어메니 이 고문의 자택을 찾아가 언쟁을



대한항공의 보잉 737-900ER 항공기. /대한항공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 갈등이 총수 일가 전체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alton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체험하고 놀고 쉬고... 테마파크야? 가전매장이야?

Q 르포 | 롯데하이마트 잠실점 '메가스토어' 가보니

국내 가전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이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가전 체험형 매장인 '메가스토어'로 탈바꿈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메가스토어' 잠실점을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을 대폭 확장 리뉴얼한 것으로 전체 면적은 7431m² (약 2248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1층에 들어서면 모바일, 스마트 모빌리티(이동수단),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정보기술(IT)가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e-스포츠 경기장, 1인 미디어존, 프리미엄 오디오 청음실 등을 구성해 직접 경험해 보고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매장의 중심부에 소비자들끼리 쉬 수 있도록 카페와 휴식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서귀포 성산에서 시작해 최근 SNS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카페 '도넛커피'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너티클라우드'와 에그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매장 곳곳에는 고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매장 내 다양한 제품과 체험 콘텐츠를 즐기다가 휴식할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브랜드들의 프리미엄 가전, 대형 가전, 주방가

1인 미디어존, e-스포츠 등 체험 삼성·LG, 초대형 브랜드관 입점 다이스 등 글로벌 브랜드 총망라

에어프라이어 활용 쿠킹 클래스 뷰티가전 셀프 스타일링 강좌도

매장 곳곳 카페, 휴식공간 마련 "올 전국에 점포 10곳 오픈 목표"

전, 생활 가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초대형 브랜드관이 입점해 원룸, 오피스텔에 맞는 1인가구부터 LG전자 '시그니처'와 '오브제', 삼성전자의 QLED TV와 '비스포크' 냉장고 등 모든 라인업 제품들을 갖췄다. 쇼룸 형식으로 구성된 매장에 앉아



캠핑카와 캠핑 용품을 전시한 매장.



캠핑카와 캠핑 용품을 전시한 매장.



매장 중앙에 마련된 고객 휴식 공간 겸 체험 공간.

/롯데하이마트

직접 방안 한가득 프리미엄 가전을 배치한 생활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워니아담채, 캐리어 프리미엄관, 롯데하이마트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터키 브랜드 '베코(beko)'의 브랜드관에서, 국내외 주요 브랜드의 프리미엄 대형 가전을 한 눈에 보며 체험할 수 있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메가스토어 잠실점 인근에는 삼성과 LG 전문관이 각각 위치해있다"며 "경쟁사가 있는 것이 롯데하이마트에 큰 자극제가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LG 대형매장이 있지만, 우리는 삼성, LG, 다이스, 기타 해외 브랜드 등 다양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앞세워 소비자를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가스토어 잠실점에는 다양

한 글로벌 브랜드 건강가전과 주방가전, 생활가전을 만날 수 있다. 쿠첸, 쿠쿠, 코웨이 등 국내 브랜드와 SK매직, 쿠진아트, 돌체구스토, 드풍기, 켄우드 등 해외 브랜드의 주방가전 코너, 필립스, 테팔, 일렉트로룩스, 브라운 등의 생활가전 브랜드관, 바디프렌드, 오섬, 휴테크 등 안마이자 체험관과 위닉스, 블루어 등 국내외 브랜드의 에어케어 가전 브랜드관을 마련했다.

2층 한쪽에는 세미나실 '하이클래스'가 위치해 가전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강의 콘텐츠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에어프라이어, 토스터, 오븐 등 주방가전을 활용한 쿠킹클래스와 시식회, 뷰티 가전을 활용한 셀프 스타일링 강좌, 모바일 신제품 사용법 강의,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전자제품 관리, PC 내부구조의 이해 등 남녀노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강의 콘텐츠를 지속적

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레스투어와 함께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올해 오프라인 점포 10곳 오픈계획과 함께 온라인 사업 확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올해 메가스토어 점포를 10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규모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아우르면서 고객 체험을 우선으로 하는 매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은 온라인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2018년에는 4000억, 지난해 5800억, 올해는 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상품 확대와 선제적 온라인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의 편의성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결합한 O2O매장 즉, 옴니스토어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백 강남점 매출 2조 '신기록'

국내 단일점포 최초 매출 새역사 해롯 등 글로벌사와 어깨 나란히 라이프스타일 리뉴얼 효과 특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대한민국 백화점 역사를 또 한번 새롭게 썼다. 지난해 누적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백화점 최초로 단일 점포 연매출 2조원을 달성한 것.

지난 2010년 개점 10년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강남점은 '업계 최단기간 1조 점포'라는 타이틀을 얻은 데 이어 '국내 첫 2조 점포'라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2조 클럽'에 가입한 강남점은 이세탄(일본 신주쿠), 라파예트(프랑스 파리), 해롯(영국 런던) 등 세계적인 백화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백화점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강남점은 지난 2016년 신관 증축 및 전관 리뉴얼을 통해 영업면적을 기존 1만6800여

평(약 5만5500m²)에서 2만6200평(약 8만6500m²)으로 늘렸다. 증축·리뉴얼 전인 2015년 1조 3000억원이었던 매출은 리뉴얼 오픈 3년차인 2018년 1조 8000억원까지 급성장했고 마침내 지난해 '연매출 2조원'의 벽을 깼다.

◆백화점·면세점·특급호텔 '3박자'

강남점은 청담동등 인근의 트렌디한 패션거리는 물론 시내 면세점(신세계면세점 강남점), 특급호텔(JW메리어트), 센트럴시티(교통)까지 같은 상권을 공유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쇼핑·관광 메카로 떠올랐다.

지난해 강남점을 찾은 국가별 고객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대만,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총 46개국의 다양한 글로벌 고객들이 찾아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면

세점, 특급호텔과 연결된 구조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맞춰 '전문관' 전략

강남점의 '전문관'이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A부터 Z까지 해당 장르에서 필요한 모든 상품들을 품목별 편집매장 형태로 꾸민 새로운 쇼핑 공간이다. 기존 브랜드 위주의 매장구성에서 상품위주의 체험형 매장형태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강남점은 2016년 증축·리뉴얼 오픈과 동시에 슈즈, 컨템포러리, 아동, 생활까지 4개의 전문관을 선보였는데, 이들 전문관은 오픈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두자릿수의 높은 매출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남점의 명품매출비중은 신세계백화점 평균 매출 비중의 4배를 뛰어 넘는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화점 전경/신세계백화점

폰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게임 PC·콘솔 등 '플랫폼 다변화'

2018년 모바일게임 점유율 소폭 ↓ 인기게임 업고 PC·콘솔 등 성장세

한국 게임산업이 모바일 게임뿐 아니라 PC, 콘솔 게임 등 플랫폼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여전히 모바일 게임이 주력으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PC 게임과 콘솔, 아케이드게임의 늘어나는 영향력도 한국 게임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8.7% 늘어난 14조 2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64억 1149만 달러(약 7조546억원)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모바일 게임이다. 2018년 모바일게임 매출액은 6조6558억원을 기록, 전체 게임산업 매출액의 46.6%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로도 7.2%의 성장률을 보였다. 모바일 게임은 지난 2017년 처음 PC 게임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 한국 게임 산업 중심으로 부상했다.

다만, 47.3%를 차지했던 2017년에 비해 점유율 자체만 비교하면 모바일 게임은 다소 낮아졌다. 반면, PC 게임과 콘솔 시장은 전년 대비 점유율이 늘어 플랫폼 다변화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PC게임 매출액은 5조236억원(점유율

35.1%), 콘솔게임 매출액은 5485억원(점유율 3.7%), 아케이드게임 매출액은 1854억원(점유율 1.3%)을 각각 기록했다. PC 게임의 성장요인은 '배틀그라운드', '던전앤파이터' 등 기존 인기 게임의 안정적인 운영과 '로스트아크' 등 신작 초반 흥행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콘솔 게임도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 호조와 '배틀그라운드', '데라' 등 기존 게임 지식재산권(IP)의 콘솔 버전 출시가 성장에 힘을 더했다.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은 동일했다. 2018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1% 늘어난 1783억68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 중 한국의 점유율은 6.3%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상위 4위에 위치한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순위다. 플랫폼 별로 보면, PC 게임의 점유율은 13.9%로, 상위 10개국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모바일게임의 점유율은 9.5%로 4위다.

한국 게임산업의 수출액 규모는 늘어났다. 2018년 한국 게임산업의 수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64억 1149만 달러(7조546억원)에 이르렀다. 수출액 비중은 중국(30.8%), 미국(15.9%), 대만·홍콩(15.7%), 일본(14.2), 동남아(10.3%), 유럽(6.5%)의 순서로 나타났다.

/김나인 기자 silkni@

경제·평화 17번씩, 공정은 14번 언급... ‘국민체감’ 방점

文 대통령 신년사 주요 키워드

혁신 12차례, 포용 6차례 거론
“혁신의 기운 경제 전반에 확산
확실한 변화 체감하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로 각각 17번씩 언급됐다. 경제 분야의 방향으로는 공정·혁신·포용을 강조했고, 일자리·노동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변화·성과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현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들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메트로신문이 문 대통령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경제·평화 두 단어는 고르게 17번씩 언급됐다. '경제'는 작년 신

년 연설 때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평화'는 작년 13차례 언급된 것에 비해 소폭 증가

했다. 경제를 지탱하는 포용·혁신·공정 단어 중 '공정'은 14차례 거론했다. 혁신은 12차례, 포용은 6차례 각각 언급됐다. 평화를 지탱하는 단어로는 '남북'이 14차례 거론했다. 다음으로 '북미'가 6차례, '북한'이 5차례 각각 언급됐다.

문 대통령이 '새해 정부 정책 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로 '경제'를 부각하자 재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타협 ▲투자 프로젝트·인센티브 등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대시키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대통령 신년사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문 대통령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범여권에서는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방향도 적절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 발표는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전후로 국무위원들과 악수했고, 신년사 발표 후 국무회의의 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혁신적 포용국가 틀 다져” vs “현실 인식 동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文 대통령 신년사 '與野반응'

민주당 “文정부 과제 실천할 것”
한국당 “서민 목소리 경청해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지난해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대통령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며 “올 한해 민생·경제·안보 모든 게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층 변화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

다”며 “2019년 한 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중국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수출 세계 7위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노력이 이어왔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국민의 삶에 뿌리내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히 다졌던 한 해가 됐다”고 부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위한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와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직시하는 신년사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선행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혁신·공정·평화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을 말하기 전 국민 앞



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장에서 비서실 수석 등 참석자들이 대통령 신년사 방송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 발표 후 바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지러운 통계 수치와 난해한 행정용어로 가득차 있다”며 “과연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가, 민생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의 평가도 긍정적이진 않았

다. 정의당에선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며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차를 맞아에서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젠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정세균 인사청문회서 ‘삼권분립’ 공방

(국무총리 후보자)

나경원 “검증 자체, 삼권분립 훼손”
丁 후보자 “기능의 분리일 뿐” 반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원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리도 계신다.” (박광온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논쟁은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부터 이어졌다.

나 위원장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 전 정 후보자를 둘러싼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이런

일은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나 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이자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은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뤄지는 해에

특정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건 공정·중립선거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적을 보유한 국무위원을 세우는 게 일상적 관례가 됐다”고 질타했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진영 장관, 선거 사범·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에 이어 국정을 통할하는 행정부 2인자에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한 선거 내각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야당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삼권분립은 국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능의 분리”라고 반박했다. 또 현직 의장이 총리직을 맡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지만 전직 의장이기 때문에 의전서열을 2위로 인정하는 곳도 없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석대성 기자

이낙연, 민주당 복귀 초읽기 ‘정치권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의 더불어민주당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총리의 행보에 따라 정치권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시선이 이 총리에게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7일 기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총리가 정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중로에 출마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격전지에 출마해 당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기 때문에 정치 1번지에서의 출마로 지역색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수는 총리 인준 절차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동의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 안 상정·표결 등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한은 16일, 정 후보자가 이 때까지 지휘봉을 넘겨 받지 못하면 이 총리의 지역구 출마도 미지수가 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 총리가 사퇴할 수는 있지만, 총리직을 공식으로 두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앞서 정 후보자 인선과 관련 “(16일 전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종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이 총리가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비례대표로 나가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총리를 총선 간판으로 내세워 전국적인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전략이다. /석대성 기자

“등록금 인상 NO”... 교육부 강공에 12년째 동결 분위기

사총협, 올해 등록금 인상방안 협의
교육부 “사회적 합의 필요” 되풀이
일부 대학, 법정한도내 인상 검토

1월 중 올해 대학 등록금 납부 통지서 발송 시한을 남겨두고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는 교육부와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들 간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다수 대학들은 올해도 12년째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할 전망이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금과 등록금 인상분을 저울질해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 등록금 갈등이 불거질지 우려된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사총협,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7개 사립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겸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올해 등록금 인상 방안을 협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들의 교육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못 본 채 하면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총장들은 이날 올해 등록금 인상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면서 “교육부를 포함해 정치권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 참석해 사총협이 앞서 지난 11월 제시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1.95%) 인상’ 건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등록금 동결 정책 유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차관은 교내 장학금 비율 20% 이상인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2유형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로 교육부는

최근 올해 등록금 상한선을 1.95%로 고시했다. 하지만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인상해도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다수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대와 단국대 등 다수 대학들은 대학측과 학생대표단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기로 했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각 대학 총학생회를 위주로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6일 ‘2020년도 등록금



지난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대안을 위한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심의위원회 대안을 위한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등록금 인상 사전 차단에 나섰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국가장학금2유형 등 등록금 동결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금과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재정확보를 저울질해 법정한도 내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대학 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년제 일반대학 185곳 중 90%에 가까운 165곳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6개 대학은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하였고, 8곳은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은 671만2000원으로 집계됐

다. 이공계열 규모가 큰 대학 위주로 등록금이 높아 연세대(910만2000원), 한국산업기술대(900만5000원), 이화여대(858만5000원), 을지대(849만6000원), 한양대(847만9000원)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OECD 국가 등 해외 대학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다수인 OECD 국가와 사립대학이 다수인 우리나라 대학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등록금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도.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상위권 수준이지만, OECD 국가 대학의 80% 이상은 국공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만, 사립대학이 90%에 육박하는 우리와는 현실이 다르다.

특히 대학들은 정부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이후 사립대학 정원 급증을 방지해놓고,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정원을 줄이라고 하면서 등록금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사립대학에 지우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교, 동네 책방으로 新 문화의 장 마련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프로젝트
팝업스토어 ‘BBB’ 11일부터 개최

대교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동네책방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세가방) 프로젝트의 팝업스토어 ‘BBB(Between Book and Book)’를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BBB는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연남장에서 진행된다. ‘책과 책 사이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동네책방과 독립출판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예술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독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고, 동네책방에서 고객과 산업 종사자들의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으로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동네책방 큐레이션을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취향서재’, 약 60여개 동네책방과 독립출판사, 관련 크리에이터 팀이 참여해 독립출판물을 선보이는 ‘북 크리에이터 마켓’ 등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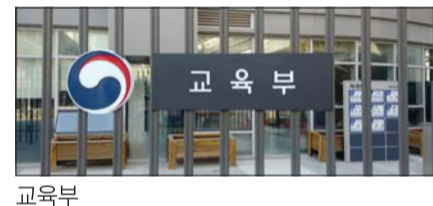
/한용수 기자

교육부, 저소득층 8000명에 평생교육 이용권 제공

9일부터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
수강료·재료비 등 年 35만원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지난 2018년~2019년까지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 총 1만2586명이 1만 2042개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농협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

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가구 소득이 약 300만원 미만)인 자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3000여명 늘린 8000여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4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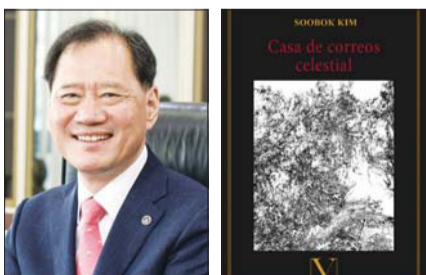
/한용수 기자

김수복 단국대 총장의 詩, 스페인에 울린다

시집 ‘하늘 우체국’ 스페인어판 출간

시인 총장인 김수복 단국대 총장이 2015년 데뷔 40주년을 맞아 펴낸 시집 ‘하늘 우체국’ (서정시학 간행)이 최근 스페인어로 번역 출간됐다. 스페인 베르븀(VERBUM) 출판사는 김 총장의 시 ‘봄의 꽃, 목련이 떨어지는 경우, 바다보다 먼 강으로, 남한강 어딘가, 한반도, 동백’ 등 80편의 시를 1,2부로 구성해 ‘Casa de correos celestial’ (108페이지)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해외문학 소개 출판사인 베르븀은 김 총장 시집이 스페인어권 독자들에게 진정한 발견을 제공하고 한국의 신비롭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절제된 서정적 언어로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또 인간과 자연과의 정서적



김수복 단국대 총장(왼쪽) 시집 ‘하늘 우체국’의 스페인어판 ‘Casa de correos celestial’ 표지(오른쪽) /단국대

대응을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시적 기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원전 텍스트 시집 ‘하늘 우체국’은 개인이 지닌 다양한 추억의 흔적을 복잡하지 않은 절제된 시어로 표현했고, 탐색과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단 평가를 받아왔다.

/한용수 기자

“원하는 일자·장소에서 병역판정 받으세요”

병무청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접수

병무청은 오는 13일부터 일자·장소 선택이 가능한 병역판정검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장소를 하루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선택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블록체인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

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 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학업 또는 직장 생활 등을 고려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희망하는 일자·장소(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대성학원

18일 재수성공전략 설명회

대성학원은 18일 오후 2시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2021 재수성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진학지도과장이 ‘2021학년도 대입심층 분석과 맞춤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하고, 고은 대성학원 상담원장이 ‘입시 성공 학습법 및 대성학원 성적 향상 시스템 공개’를 주제로 대성학원의 성적 향상 노하우를 공개한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2020학년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 배출, 11년 연속 만점자 배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대성학원의 입시 전략과 교육 노하우가 수능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대성학원의 입시 전략이 담긴 ‘2021 재수성공전략 자료집’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G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신동빈 롯데 회장, 새해 첫 출근해 임직원과 점심식사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7일 새해 첫 출근해 지주 및 B U 임원들과 정기회의를 가진 뒤 롯데월드타워 내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변에 앉은 직원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건넸으며, 직원들과의 사진 촬영에도 웃으며 응했다. /롯데지주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사퇴... 총선출마 수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은 7일 정부에 이사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는 4월 21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를 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3월까지 약 1년이 남은 상태다.

이상직 이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제



17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중진공 설립 40년이래 첫 호남권 출신 이사장으로 주목 받았다.

/배한민 기자 ericabae1683@



LS니꼬동제련 노사, 취약계층 위해 1000만원 성금
LS니꼬동제련이 6일 울주군청을 찾아 노경합동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왼쪽부터)김동열 울주군청 복지교육국장, 박태관 울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민경민 LS니꼬동제련 제련소장, 이선호 울주군수, 박성걸 노조위원장, 박은덕 울산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S니꼬동제련



NH투자증권, 16일 명사특강 개최
NH투자증권 100세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대 아카데미 명사특강'을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아트홀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새해 첫 명사특강에서는 '업글인간', '오파세대', '멀티 페르소나', '스트리밍 라이프' 등 '2020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멘토인 김난도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 /NH투자증권

인사

◆**경향청** ◇ 경무관 전보 △정보화장비정책관 박지영 △과학수사관리관 이종호 △정보심의관 윤소식 △경무담당관실(국립외교원) 최주원 △경무담당관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시승 △경무담당관실(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우중수
◆**전북 남원시** ◇ 5급 승진 △기획실 양노식 △관광과 양선모 △재정과 조윤기 △건설과 이재우 △보건소 이만선 △보건소 하진숙 △건설과

성길경 △건축과 김현주 △민원과 이동현
◆**방위사업청** △사업감사담당관 방극철
◆**한국석유공사** △기획예산처장 정연국 △자산관리처장 이성기 △홍보문화실장 최문규 △석유정보센터장 권오복 △안전환경처장 정찬식 △E&P기획관리처장 임건목 △미주/유럽사업처장 박진근 △아시아사업처장 이재석 △석유비축처장 이주현 △석유사업처장 김성원 △유통사업처장 이의성 △여수지사장 백종연 △서산지사장 박중근 △거제지사장 황호윤 △평택지사장 김명철 △곡성지사장 정이교 △

동해지사장 목진승
◆**NH투자증권** ◇ 부장 신규선임 △글로벌 채권영업부 김한백
◆**내일신문** △정세용 논설교수 △남봉우 논설주간 △박진범 편집국장 △안찬수 경제편집위원 겸 재정금융팀장 △문진현 정치편집위원 겸 정책팀장
부음
▲김은호 씨 별세, 김학준(씨맥스 대표)·김기준(개인사업)·김남준(개인사업)·김시연 씨 부친

상, 김영민(OSEN 대표이사) 씨 장인상 = 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9일 오전 6시. 02-2258-5940
▲**신기창**(전 성균관대 산학협력팀장)씨 별세, 조동숙씨 남편상, 신정연(삼성전자 책임연구원)·신지연(현대자동차 중국사업본부)씨 부친상, 최자운(삼성전자 연구원)씨 시부상, 전성식(북경대 박사 과정)씨 장인상 = 7일 오전 0시 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02
▲**예종주**씨 별세, 박신홍(전 서강건설 전무이

사)씨 부인상, 박재영(롯데제이티브 대표이사)·박성수(코바이노베이션 상무)·박현욱씨 모친상, 김동환씨 장모상 = 7일 오전 3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9일 오전 7시. 02-3410-6917
▲**이재송**씨 별세, 이정호(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정익(이정의 내과의원 원장)·이정권(수원지법 부장판사)씨 부친상 = 6일 오후 11시 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8일 오전 9시부터 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괴물들’이 지배하는 세상



홍경안의 시시일각

세상은 그림을 거울로 삼고, 그림은 거울처럼 세상을 투영한다. 그것은 때로 끔찍하고 괴기스러우며 아름답지 않으나 동시대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엿볼 수 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 작가 ‘프란츠 세들라크’의 1933년 작품 ‘나무 위의 유령’(Ghost in the Tree)에는 바짝 마른 해골을 한 새들이 까마귀 떼처럼 나무에 앉아 있다. 마치 죄악의 삶을 보낸 자들의 고통스러운 영혼을 보는 것 같아 다소 섬뜩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감정은 ‘요르그 임멘도르프’가 2005년에 그린 인체 작품에서도 동일하다. 부서질 듯 마른 꽃과 초점 없는 신체는 동전의 양면 같은 삶과 죽음을, 을씨년스러운 배경은 절망과 허무함을 흠뻑 풍고 있다.

먼지처럼 푸석한 감정과 무기력한 자각을 드러내는 이 작품들을 보노라면 자연스럽게 건조한 인간사를 예견했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을 떠올리게 된다. 갈수록 매마르고 점차 두꺼워지는 소외의 벽, 타인의 희생을 이기(제

의)의 제물로 삼는 동시대인들의 모습과 교차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제물의 역할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바로 같은 식사라도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이들, 배경 없는 사람들, 출발선이 다른 자들이다. 폼수와 편법조차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 힘없는 인간들이다. 그들은 경제적 자본으로 학벌 같은 사회적 자본까지 세습하는 구조마저 정상처럼 취급되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슬픈 약자로, 제아무리 용을 써도 이미 ‘괴물’로 성장한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 괴물들은 양심과 지성이 자릴 비운 사이 몸집을 키운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부정 따윈 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파렴치와 윤리적 타락에서 힘을 얻는다.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희망에 기대어 내일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사회와 멀어질수록 지배력을 넓히고, 인정, 배려, 존중, 관심이 줄어드는 만큼 불안, 공포, 배척, 시기, 질투를 배양한다.

괴물이 만든 세상은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걸작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Triptych of Garden of Earthly Delights) 속 난잡한 그것들과 다를 바 없다. 아니, 그곳이나 이곳이나 참됨을 저버린 채 가짜 낙원 속에서 쾌락을 즐기

다 지옥으로 떨어질, 탐욕과 교만의 마차를 탄 괴물들이 득시글하다. 그림과 실제 간 경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어딜 봐도 괴물뿐인 세상, 문득 ‘피르소’의 독백을 경청하는 이도, ‘그레고르 잠자’의 고통과 불행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저무는 낙관론에 새로운 중세의 겨울이 도래하는 이곳에서 우린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본다.

혹자는 ‘사랑’ 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나와 다수는 그리하지 못한다. 진영에 따라 양심과 정의의 온도마저 달라지는 일부 위선자들을 사랑하기 힘들며, 편법과 반칙으로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이들을 도저히 가엾게 여기기 어렵다. 인간은 너무 자주 흔들리기에 신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보쉬의 베로니카 손수건 속 예수님은 악한 자, 핍박하는 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겠다. 모든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아직 사랑하는 법을 깨닫지 못해서일까. 그 또한 알지 못하겠다. /미술평론가

“춤춤한 리스크 관리로 질적성장 유도”

NH농협금융, 결의대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6일 리스크관리부문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0년 농협금융 리스크관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송수일 리스크관리부문장을 비롯해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금융은 단기업적 중심의 사업추진보다는 춤춤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감독기관이 부동산금융규제를 강화하고 해외대체투자를 점검하는 등 대체투자 건전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경기 민감 자산을 집중 관리하고, 평균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자산에 대해 자회사별 모니터링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역마진 보험상품 증가와 운용수익률 하락 등에 따른 보험자회사 금리리스크도 집중 관리한



지난 6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2020년 농협금융 리스크관리 결의대회’에서 송수일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리스크관리부문 임직원들이 결의대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다. 이와 관련해 강승원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전략 팀장이 ‘국내의 채권시장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저금리 기조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임직원들은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농협금융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

짐했다. 송 부문장은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 임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내실있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베트남·인도네시아서 엘포인트 전환 서비스 론칭

롯데멤버스 “국내서 쌓은 포인트 동남아서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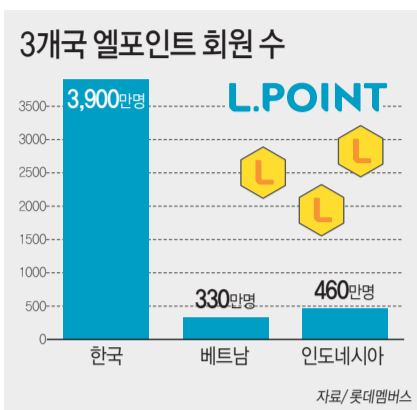
롯데마트 등 3국 가맹점서
엘포인트 적립·사용 가능

앱 ‘전환하기’서 포인트 전환
오픈기념 이벤트 내달 진행

롯데멤버스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엘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론칭했다. 국내 멤버십 포인트 및 간편결제 업체를 통틀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엘포인트가 최하다.

롯데멤버스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운영되던 현지 엘포인트와 한국 엘포인트를 연동해 상호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쌓은 엘포인트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엘포인트로 바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거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쌓은 엘포인트를 전환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



게 됐다.

국가별 전환 비율은 베트남 1:20, 인도네시아 1:12이다. 고정 비율이 적용되고 전환 수수료도 없어 시점에 따라 원화보다 유리한 조건의 환전이 가능하다. 사용 후 잔여 포인트는 다시 기존 국가 엘포인트로 바꿀 수 있다.

엘포인트 베트남은 롯데호텔, 롯데센터 전매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현지의 롯데 가맹점은 물론 UOB은행 등 12개 제휴사 가맹점에서 쌓고 쓸 수 있다.

엘포인트 인도네시아 역시 롯데면세점, 롯데쇼핑에비뉴,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인도네시아 현지 롯데 가맹점과 사히드호텔 등 25개 제휴사에서 적립 및 사용 가능하다.

국가 간 포인트 전환 절차도 간단하다. 엘포인트 앱 ‘전환하기’ 페이지에서 보유 포인트 현황과 전환 시 금액 등을 확인한 후 바로 바꿀 수 있다. 현재 월 최대 한도는 50만 엘포인트(베트남 600만P/인도네시아 1000만P)며, 추후 200만P까지 상향 예정이다. 최초 이용 시에는 현지 엘포인트 회원가입 동의와 영문명 등 일부 추가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해외 포인트 결제 이벤트도 내달 진행한다. 이벤트

공지 및 전환조건, 사용처 등 자세한 정보는 엘포인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우 롯데멤버스 경영전략부장은 “위라벨 문화 확산, 한달살기 트렌드 등에 따라 한국인들의 동남아 여행이 늘었을 뿐 아니라 K팝, K드라마 등 열풍으로 동남아 방문객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엘포인트는 현지 법인에서 수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서비스인 만큼 3개국 회원 모두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멤버스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 엘포인트 사업 모델을 동남아에 적용, 지난 2013년 ‘엘포인트 인도네시아(L.POINT INDONESIA)’, 2016년 ‘엘포인트 베트남(L.POINT VIETNAM)’을 론칭했다. 한국의 3900만 회원과 별개로 현재 각각 460만, 330만명의 현지 회원을 보유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 판교점 ‘웰니스 란제리 하우스’

현대백화점 판교점 3층에 웰니스 란제리 하우스

현대백화점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점 3층에 란제리 편집숍 ‘웰니스 란제리 하우스’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점에 개장한 1호점,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천호점에 문을 연 2호점에 이은 3호점이다.

웰니스 란제리 하우스는 란제리 제품을 비롯해 스킨케어, 헬스 디바이스 등 뷰티 제품을 판매한다.

매장명 중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을 합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면적은 232㎡(약 71평)다. ‘란제리 존’, ‘웰니스 존’, ‘팝업 존’ 등으로 구성한다.

/신원선 기자

오리온, 베트남서 쌀과자 누적매출 106억 ‘인기몰이’

쌀과자 점유율 13%, 시장 2위
한국 비롯 주변국에 수출키로

오리온은 베트남 법인에서 개발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쌀과자 ‘안’(An, 安)이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6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베트남 쌀과자 시장 점유율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출시하자마자 단숨에 쌀과자 시장 내 2위로 올라섰다.

오리온은 쌀과자 시장 진출을 베트남 법인의 신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정하고, 2년간 제품 연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더불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재료가 되는 쌀을 찾는 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 동남아는 주로 자스민 품종 쌀을 많이 먹는데 반해,



오리온 베트남 법인에서 출시한 쌀과자 ‘안’이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6억원을 기록했다. /오리온

‘안’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의 자포니카 품종을 엄선, 수확한지 6개월, 도정하지 1달 이내의 신선한 쌀을 사용한다. 제조 공정 상에서도 바삭한 식감과 구수한 쌀 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직접 불에 굽는 독특한 방식을 도

입했다. 오리지널 맛과 김맛 두 가지로 선보여, 출시되자마자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있다.

오리온은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06년

호치민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했다.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국민 간식으로 자리매김한 초코파이를 비롯해 스낵, 비스킷 등 다양한 제품 출시들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지 제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쌀과자 안, 양산빵 세봉(Cest Bon) 등을 출시해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의 제과 노하우가 집약된 쌀과자 ‘안’이 차별화된 제품력으로 처음 진출한 쌀 스낵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있다”며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추후 한국을 비롯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도 수출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는 브랜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NS홈쇼핑 ‘정보보호실’ 신설

NS홈쇼핑이 정보보호 조직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PIA) 임명,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NS홈쇼핑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집중하는 ‘정보보호실’ 조직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신규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보보호실은 기존 준법지원실 소속의 정보보안팀과 정보전략실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CEO 직속의 독립된 부서로 격상한 조직이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직무를 맡는 정보보호실장에는 정보보호 업무 경력 10년 10개월을 포함해 글로벌 IT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박영택 실장을 임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직개편과 임명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경영진의 의사결정 확보 및 전사적 정보보호 활동의 체계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박영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사진) 예산 및 인력 할당 등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수행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원선 기자

동원홈푸드 ‘프리미엄 차례상’ 판매

온라인을 더반찬서 19일까지 예약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더반찬이 설 명절을 맞아 ‘프리미엄 차례상’의 예약 한정 판매를 19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더반찬이 2018년 추석 처음으로 선보였던 ‘프리미엄 차례상’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명절 풍속도에 따라 간편하게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이다. ‘프리미엄 차례상’은 매 명절 시즌마다 완판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구매 고객 중 95%가 재구매의사를 밝힐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더반찬 ‘프리미엄 차례상’은 사과, 배, 귤, 감, 간밤, 건대추 등 다양한 과일을 비롯해 수제 모듬전, 갈비찜, 잡채, 소고기뭇국, 명절나물 등 총 24종의 제



동원홈푸드 더반찬이 ‘프리미엄 차례상’을 한정 판매한다. /동원홈푸드

수 음식들이 4~5인 기준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프리미엄 차례상’의 주문 예약은 19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24일 새벽에 일괄 배송될 예정이다. 가격은 25만원이며, 예약 구매 고객에게 2만5천원의 장바구니 쿠폰이 일괄 지급된다.

/박인용 기자

온라인 쇼핑몰 설맞이 마케팅 돌입

G마켓·옥션 차례용품 등 최대 70%
롯데닷컴 고가·저가 상품 함께 구비
CJ몰 카테고리별 할인 ‘설 기획전’

온라인 쇼핑몰들이 설을 앞두고 각종 할인과 적립을 제공하며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 상품과 차례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설비세일’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사이트에서 구매액에 따라 사용 가능한 5천~5만원 할인쿠폰을 날마다 준다. 이 쿠폰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60여개 브랜드 전용 할인쿠폰도 별도로 제공한다. 동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정관장 등이 브랜드 할인 쿠폰 제공에 참여한다. ‘오늘의 특가’

코너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이 빠른 상품을 매일 80여개씩 선보인다.

롯데닷컴은 21일까지 설 명절을 혼자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 차례상과 가정 간편식 상품을 판매한다.

또 한 사람이 고가와 저가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소비 양면화’ 경향을 반영해 고가의 백화점 선물세트와 ‘가성비’ 선물 세트를 함께 판매한다.

CJ몰도 21일까지 설 준비와 가구·패션·건강·효도선물 카테고리에서 10% 적립과 5% 청구할인 해주는 ‘2020 설 기획전’을 연다.

원하는 날짜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일 배송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에 한해 세 곳까지 배송지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배송’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 못한다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대한 피해준 경우 즉시 폐쇄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가 제한된다. 임신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임신부·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모자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과 질병 의심자의 근무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후조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가 규정한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

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산후조리원은 의심자의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직원을 업장에서 격리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감염·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신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는데도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소독 등 환경관리와 임신부·신생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질병 의심자 근무제한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임신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1차 위반으로도 폐쇄 명령을 받는다.

/이세경 기자

경남제약 '레모나' 가 진출... 오앤영과 유통계약

경남제약의 '레모나'가 베트남에 이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다.

경남제약은 오앤영인터내셔널과 캐나다 입점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레모나를 전세계에 '글로벌 대표 비타민'으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매출 극대화도 노린다는 각오다.

오앤영인터내셔널은 '오앤영 성형외과'의 계열 회사로 중국과 홍콩, 북중미 등 글로벌 유통업체에 한국 화장품과 이너뷰티 아이템(건강 미용식품 등)을 전문 유통하고 맞춤형 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으로 오앤영인터내셔널은 레모나를 캐나다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 및 유통하게 되며, 오프라인 업체들



과의 바이어 파트너십 및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993년 설립돼 캐나다 전역에 17개 매장을 보유한 캐나다 최대 아시아계 슈퍼마켓체인 티앤티(T&T)를 시작으로, 캐나다 토종 유통 업체인 '로블로' '소베이' '메트로' 등에 레모나를 입점시킬 예정이며, 이후에는 온라인 시장으로 점차 확장해 매출 다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신세계푸드 차세대 먹거리 '케어푸드' 선점 나서

신세계푸드가 식품업계 차세대 먹거리로 여겨지는 케어푸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세계푸드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이지밸런스(EASY BALANCE)'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케어푸드란 건강상의 이유로 맞춤형 식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로 통용되고 있다. 주 고객은 노인과 환자지만 일시적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지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산모, 어린이 등도 포함된다. 케어푸드의 종류로는 저작(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 기능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연화식(軟化食)과 인두, 식도 근육이 약해져 연하(음식을 삼키는 행위)가 곤란한 경우 이를 돕는 연하식(嚥下食)으로 나

뉜다. 신세계푸드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4%를 넘어섰고, 고령자의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량팩 또는 가정간편식 형태의 연하식을 제공할 경우 향후 케어푸드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이지밸런스'를 론칭하고, 신규 개발한 연하식 5종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 자체 개발한 연하식 및 영양식 제조 기술에 관련된 특허 4건도 출원했다. 신세계푸드는 첫 출시한 이지밸런스 연하식 5종 외에 추가로 제품을 개발해 요양원, 대형병원 등 B2B(기업간 거래) 시장을 공략한 후 향후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이지밸런스 연하식 5종 /신세계푸드

정부 4200억 투입... 바이오 육성

〈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년 3807억대비 10.1% 증액
바이오 융복합 기술 확보 적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4200억원 규모의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 바이오 산업혁신 전략에 따라 올해는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전년(3807억원) 대비 10.1%가 증액된 419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약, 의료기기, 뇌연구 등 바이오 핵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빅데이터,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3D 생체조직집 등 미래 바이오 융복합 기술 확보에 적극 투자한다.

정부는 우선 신약, 의료기기, 정밀의료 등 바이오핵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 타깃 발굴 및 검증 등을 위한 신규 사업 등 신약기술 확보를 위해 614억원을 투자한다. 또 혁신적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에 올해 약 295억원(2025년까지 총 1조1971억원)을 신규

2020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 총 4193억원 (전년 대비 10.1% 증가)	
국민건강증진	
치매	30억원
뇌질환	571억원
감염병	244억원
핵심 산업육성	
신약	533억원
의료기기	295억원
정밀의료	41억원
원천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재생의료 등 차세대기술	900억원
그린 및 화이트 바이오	263억원
생명연구지원	489억원
창업 및 사업화	379억원
미래 융복합기술 확보	
바이오 빅데이터	43억원
IT 등 융복합	109억원
융복합헬스케어	296억원

자료/과기정통부

지원한다.

정밀의료 예측 및 진단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유전체, 단백질, 대사체, 전사체 등 생체정보(오믹스) 데이터를 발굴,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올해 41억 7000만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AI, 빅데이터 등이 바이오 분야에도 활용돼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돼 융복합 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2만명 규모의 연구용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를

환자 의료부담 던다... 산정특례 질환 추가

(회귀·난치질환)

91개 질병 지정... 4700여명 혜택
산정특례 제도, 본인 부담률 10%
환자 의견, 심의 거쳐 적용대상 확대

회귀·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올해 91개 질병이 추가돼 4700여명의 환자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회귀질환 여부를 진단할 요양기관도 추가 지정해 환자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1일부터 산정특례 회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회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모두 10%까지 낮춰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올해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고열,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인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회귀질환으로 추가됐다. 약 4700여명이 추가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회귀질환은 총 1014개로 늘어나고 혜택 인원도 종전 약 26만5000명에서 27만여명으로 증가한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 의견을 회귀질환 헬프라인, 국민신문고 등 경로로 수렴하고 질병관리본부회귀질환관리위원회와공단산정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 질환군을 신설, 지난해 30개에 이어 올해 22개 등 총 52개 질환자에게 산정특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회귀질환자들은 산정특례 외에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중증환자) 등을 지원하는 회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세경 기자

필요성 알지만 10명 중 6명만 '건강관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원

성인 10명 중 9명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원 구원의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8~

9월 전국 만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2%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4.1%에 그쳤다. '현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7.2%, '10년 후에도 건강이 변함이 없거나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응

답자도 78.5%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건강관리 중요성에 비해 지금 당장 필요성은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50.2%)는 2명 중 1명만 건강관리를 하지만, 60대(74.5%)는 4명 중 3명이 관리하는 등 실천율은 고연령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정기 운동(52.8%)이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49.2%), 정기적 검진(45.1%), 절주·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34.6%), 식습관 개선(40.2%) 순이었다.

/이세경 기자

실속 상품서 500만원 프리미엄까지... '풍성한 패키지'

호텔업계 설 선물준비 분주

호텔업계가 2020년 설을 앞두고 선물 세트들을 선보이고 있다. 프리미엄 선물 세트부터 간소화 및 소포장 선물세트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트리플 오일·소금 등 식재료 세트

7일 업계에 따르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구성의 '프리미엄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세 가지 카테고리 구성되며 한우, 와인, 전통장 등 다양한 구성으로 정성과 품격을 더한 반얀트리 선물세트를 비롯해 반얀트리 서울의 클럽동 3층에서 만나볼 수 있는 디저트 브랜드 '몽상클레르'와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 '반얀트리 스파'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구성된다. 반얀트리 서울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유명 와인 산지 까안파나 몬탈치노의 로마 로스팅을 비롯해 트리플 오일, 트리플 소금, 바질 페스토 등 프리미엄 식재료로 구성된 반얀트리 스페셜 세트 1을 출시한다. 민트차와 머그컵, 개복숭아 절임 등으로 구성된 ▲반얀트리 스페셜 세트 2도 함께 내놓는다. ▲프리미엄 정육 세트 ▲와인 세트 ▲기순도 명장 전통장 세트 등이 있다. 가격은 8만5000원부터 29만8000원까지 다양하다. 몽상클레르 선물세트는 구성에 따라 몽상클레르 ▲햄퍼 S ▲햄퍼 A ▲햄퍼 B로 분류된다. 3가지 종류의 선물세트 모두 몽상클레르의 대표 디저트인 카스텔라, 파운드케이크, 마카롱 등으로 구성된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최고급만 담은 500만원 '정일품'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고품격 추석 선물세트 30여종을 판매한다. 설 선물 세트의 가격은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육류부터 해산물, 와인, 중국차, 티 세트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먼저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의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세트는 가정에서 손쉽게 호텔 조리장의 노하우를 즐길 수 있는 '조리장 특선 양념 LA 갈비(24만원부터)'와 호텔 세프가 특선급의 가장 좋은 부위만 엄선한 '호텔 특선 갈비찜(45만원)'이다. 이 두 상품은 깊은 풍미와 푸짐한 양으로 명절마다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아이템이다. 최고급 상품만으로 구성된 고품격 선물 세트로는 '정일품(正一品) 세트(500만원)', '정이품(正二品) 세트(320만원)', '정삼품(正三品) 세트

(200만원)'도 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10만원 이하의 상품도 눈길을 끈다. 임피리얼 팰리스 천산 중국주(5만원), 대관령 황태 세트(5만5000원), 자연 그대로 벌집 꿀 선물세트(6만8000원), 건강한그레놀라 세트(6만8000원), 명품 볶음 고추장&간장 세트(7만원), 정성 담은 예다음 상주꽃감(7만5000원) 등이다.

서울드래곤시티

지리산 꿀 등 인기 지역특산물

서울드래곤시티는 특급호텔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급 식재료와 인기 특산품을 큐레이팅 한 '종합 설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청보리 발효 사료만 먹고 자란 무항생제 한우 1+ 등급의 명품 숙성 한우 세트(59만원)와 최상급 해산물만 엄선해 정성을 더한 랍스터&전복장 세트(24만원)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필두로, 한과(9만5000원, 6만5000원 2종)

와 ▲청도 반건시(6만9000원, 4만9000원 2종) ▲청정 지리산 벌집 꿀(9만9000원) 등 명절 스테디셀러로 손꼽히는 지역 특산품을 설 선물 세트에 내놓는다.

신라호텔

소포장 한우 등 20여 종 육류 세트

신라호텔이 설을 앞두고 육류, 수산물부터 웰빙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1~2인의 소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처음으로 소포장 육류 선물세트인 '차요한우'를 출시했다. '차요'란 '작지만 요긴하다'는 뜻의 한자로, '차요한우' 선물세트에는 소인 가구에서 한끼 식사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등급 한우가 200g씩 소포장돼 있다. 등심, 안심, 채끝 등 가장 인기가 좋고 활용도가 높은 정육 부위를 선별해 소인 가구에 선물하기 알맞게 구성했다. 신라호텔은 '차요한우' 외에도 '정성한우 모듬', '대관령 들품'

등 20여 종의 육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정성한우 모듬'은 불고기, 국거리, 산적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한우 부위를 모듬으로 구성해 다인 가구에 선물하기 적합하다. 이외에도 신라호텔 베이커리 '패스트리 부티크'의 대표 상품들로 구성된 '신라 패스트리 햄퍼'도 인기가 좋다. 다쿠아즈와 마들렌, 쇼콜라 등 10여종의 베이커리를 고급스럽게 포장해 정성과 품격을 더했다.

위커히 호텔앤리조트

명월관 갈비탕세트 HMR로 마련

위커히 호텔앤리조트는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조리 명인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먼저 위커히의 정통 한식당 온달에서 육개장 가정간편식 선물 세트를 출시했다.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개발됐다. 600g 팩 6개로 구성된 온달 육개장 세트의 가격은 6만9000원이다.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에서는 고품질 갈비를 선별해 우려낸 소갈비 육수에 양지 육수를 더해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프리미엄 갈비탕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명월관 갈비탕은 명월관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하는 인기 메뉴다. 명월관 갈비탕 세트의 가격은 11만3000원으로, 600g 팩 6개로 구성됐다. 온달에서는 온달 명품 간장 계장을 제안한다. 온달만의 비법 소스가 깊이 배도록 오랜 시간 숙성하여, 특유의 감칠맛을 자랑한다. 1kg 5팩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9만5000원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5000명 규모 中인센티브 관광 인천 유치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에 있는 건강식품·보조기구제조회사인 이용탕 임직원 5000명의 인센티브 관광을 인천으로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센티브 관광은 회사가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이다. 이번 유치는 2017년 이후 단일회사 관광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용탕은 푸야오 그룹 계열사로 2015년 5월에 설립됐다. 건강 웰빙식

품·건강 보조기구 등의 유통과 연구 개발을 주력으로 연간 약 20억위엔(한화 약 335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용탕의 인센티브관광 계획을 입수한 한국관광공사는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용탕 임직원들은 이날부터 5박 6일간 경복궁,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인천 월미도 등 관광명소를 여행한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9일 열리는 기업 행사에는 황지철, 이정현 등 한류스타의 특별 공연이 마련됐다. /김현정 기자 hik1@

연말연초 직장인 新 선물 풍속도

10명 중 8명 "수고한 나에게 셀프 기프팅"

34%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응답자 대부분 긍정적 소비 의견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커리어가 직장인 366명을 대상으로 '나를 위한 선물(셀프 기프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연말 또는 연초에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자신을 위한 선물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묻자 '10만원 미만(36.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3.8%, '금액대는 상관 없다' 14.1%,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1.2%,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6%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본인을 위한 선물을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95.9%)고 답했고, '셀프 기

프팅은 사치가 아니다' (93.2%)고 했다. '셀프 기프팅은 사치' (6.8%)라는 의견은 소수였다. 본인과 주변 지인들 중 셀프 기프팅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절반 이상(56.6%)은 '주변에 셀프 기프팅족이 꽤 많다'고 답했고, '별로 없다' (30.9%), '거의 대부분이다' (11.8%), '거의 없다' (0.8%)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hys@

아모레퍼시픽 홈 피부관리 브랜드 '홀리추얼' 론칭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홈에스테틱 브랜드 '홀리추얼' (HOLITUAL)을 공식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홀리추얼은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과 에스테티션의 피부 관리 노하우를 결합한 브랜드다. 홀리스틱(Holistic·전체론적인)과 리추얼(Ritual·의식)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피부 조화와 균형을 찾아주는 고기능성 제품에 전문적인 케어법을 더하고자 했다. 홀리추얼은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홈 케어를 위해 5가지 신제품을 선보인다. 당



아내기만 해도 즉각적인 필링과 피부결 개선 효과를 주는 2스텝 필링 패드인 배디언스 리설페이싱 필과 35년간 한방곡물 팩으로 전문적인 피부 트러블 관리법을 제시해온 핼플하우스 백지원 원장의 레시피를 원형 그대로 제품화한 '클린테라피 파우더 마스크'가 대표 제품이다. /신현선 기자 tree6834@

삼성카드, 배달대행료 특화카드 출시

사업자에 혜택 '부릉 삼성카드 비즈' 삼성카드는 단독 제휴로 정보기술(IT) 기반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의 '부릉'에서 배달대행료를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부릉 삼성카드 비즈(BIZ)'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부릉 삼성카드 비즈는 '부릉'의 배달대행서비스 이용료를 기존의 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 서비스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상

품이다. 부릉 삼성카드 비즈는 전월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1~3% 빅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 주유소·할인점·음식점·온라인쇼핑몰·학원에서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1% 적립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병원·해외 가맹점에서 이용 시에는 결제 금액의 2%, 커피 및 제과, 편의점에서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3%가 적립되며 각각 월 5000 포인트까지 적립된다. 자세한 대상 가맹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영화 및 제과점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부릉 삼성카드 비즈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 원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무 대 위 에 피 어 난 대 서 사 시

기억하나요, 그날의우리

여명의 눈동자

MUSICAL

타임세일
40%할인

〈여명의눈동자〉를 아시나요

할인기간 ~1월 8일까지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764-9102

* '여명의눈동자를기억하시나요' 권종 선택

2020.1.23-2.2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SUKI COMPANY 후원 THE

인천대교 안전점검... 16일까지 부분통제

인천대교가 13일부터 16일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인천대교는 연결도로구간의 정밀 안전진단으로 인해 통행차량을 차단하는 부분 부분통행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인천대교 송도부터 학익구간으로 10분 이내로 차량운행을 부분 통제한다.



인천대교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구조물의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10년이 지나면 1종구조물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1종구조물은 인천대교와 같은 사장교나 영종대교 같은 현수교 등 대형 교량뿐만 아니라 교각과 교각이 50m이상인 구조물

은 모두 대상이며, 터널도 포함된다.

/인천취재본부 김창근 기자 mirex@

동네방네

인천동구보건소, 새해맞이 맞춤 금연컨설팅

인천 동구보건소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구보건소에서는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

검사, 맞춤형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품 지원 등 1:1 맞춤 컨설팅을 통한 금연성공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사업장과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소외이웃 위해 특별회비

과천시는 김종천 시장이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회비 전달식은 김종천 시장과 윤신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적십자 회비는 재해 이재민을 비롯한 저소득층 구호사업, 사회봉사,

지역 보건·의료·혈액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데에 사용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심을 갖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경기=박원희 기자 wanhee@

인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새단장 실시

인천 남동구가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6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 천장마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건강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는 기존 천장마감재에 포함된 석면교체 및 화재대비를 위한 스프링클러 시설 설비, 복지관내부 환경개선 및 화장실



인천 남동구 복지관 전경 사진

개보수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는 남동구는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경도 연륙교 첫삽... 랜드마크 부푼 꿈

측량·지반조사 용역 병행 예정 총연장 1.325km 2023년 개통목표 국비, 지방비 각각 40%... 총1156억

미래에셋이 1조원대를 투자하는 전남 여수 경도의 진입도로(연륙교) 개설 사업이 본격화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 신월동과 경호동 대경도 일원을 연결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용역 발주가 이달 중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뿐 아니라 측량·지반조사 용역도 병행된다.

경도지구 진입도로는 총연장 1.325km(2차로)로 아치교, 사장교 등 경관이 수려한 교량으로 계획해 여수의 랜드마크로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156억원(국비 40%, 지방비 40%, 민자 20%)이다.

전남도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용역 기간 중 4월께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입찰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륙교 건설사업은 턴키방식이 유



여수시 경도 전경

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턴키방식이란 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공하는 방식으로 설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설계 적격자는 12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설계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3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연륙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4년 경도해양관광단지 본격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수 경도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달중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면서 "12월 설계사를 선정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385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광단지 내 6성·4성급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해수풀, 쇼핑몰,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등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귀농·귀촌인 유치... 상주시 '자전거마을' 조성

29,233㎡ 단독주택 36세대 인근에 자전거박물관, 도로 도시민 유입 농촌 활력 기대

상주시 사벌면 묵hari 묵하지구 '자전거 마을' 조성공사가 완료됐다.

상주시는 묵hari 경천대 인근에 조성한 자전거 마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 마을은 29,233㎡에 단독주택 36세대가 들어서 있다. 2016년 착공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택 건축까지 마쳤다.

자전거 마을은 낙동강의 제1경 경천대 인근에 위치해 낙동강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또 주변에 상주 국제승마장, 상주자전거박물관, 낙동강 둘레길, 자전거 길 등이 있어 레저스포츠를 즐기기도 좋은 곳이다.

자전거 마을이란 이름은 상주가 '자전거의 도시' 인데다 인근에 자전거박물관과 낙동강 변 자전거 도로가 있어



상주자전거마을 조성공사

붙여졌다.

자전거 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인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조성됐다.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마을 조성 취지처럼 실제 입주자 대다수는 외지인이다.

고상환 자전거마을 정비조합장은 "자연과 친화된 우리 마을은 이웃과 정

답게 생활하며 농촌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활기찬 마을로 만들고자 한다."라며 말했다.

상주시 이경호 개발지원과장은 "자전거 마을은 낙동강 관광벨트에 위치해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해 도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며 "앞으로도 거주 공간 마련에 적극 나서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영암군 관광해설사, 방문객 맞춤서비스 제공

영암군은 문화관광해설사를 관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관광영양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비롯해 왕인박사유적지도 감사·가야금산조기념관·하정음미술관·도기박물관 등 8곳에 34명의 관광해설사가 상시 배치돼 방문객들에게 소박한 영암 이야기를 전해 주는 등 관광 안내를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군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외

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어·일본어·중국어가 가능한 외국어 해설사를 5명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왕인문화축제와 월출산 국화축제 등 행사장 곳곳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축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축제 안내·관광지·음식점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어 한차원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2억5천만원을 투입해 단체복과 해설 장비 지원,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비를 지급하고 워크숍과 보수교육 통해 지식함양을 통한 수준 높은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해설사협회는 무등일보사에서 주관한 2019 문화관광예술박람회 '폴로키움'과 '2019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명성을 드높였다.

/전남=양수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0

1월 8일 (수) 음력 : 12월 14일

수도권 날씨 **3 ~ 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4/4, 동두천 4/5, 가평 3/6, 파주 4/4, 서울 3/5, 양평 5/6, 수원 5/5, 용인 5/5, 평택 4/5, 백령도 0/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투자유치 나선 박원순... 美 3개 도시 순방

서울시 'CES2020'과 연계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의 7박 10일간의 미국 3개 도시 순방길에 오른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7~16일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미국 순방은 2016년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몬트리올 방문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순방은 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0'의 서울시 첫 참가와 연계해 계획됐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회(CTA) 주관으로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다. IT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최초로 CES에 참가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20개 중소기업이 동행해 세계에 자신들의 기술을 알린다.

박 시장은 CES에 참가하는 국내·외 기업인, 미국 현지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을 초청해 동행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두번째 방문도시인 실리콘밸리가 자리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매력적인 투자처인 서울



박원순 시장. /손진영 기자 son@

알리기에 집중한다.

박 시장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이사회의 존 헤네시의장,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과 면담하고 스탠퍼드대 초청 강연에 나선다. 이후 워싱턴 DC로 이동해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연설한다.

미 국무부 브라이언 블라타오 차관과 면담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초청 연설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CES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혁신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세계 최대 박람회로, 그 자체가 혁신 박물관"이라며 "세계적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혁신 에너지와 창조적인 열정, 과감한 도전을 경험하고 스마트도시 서울의 경쟁력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100만명 모인 '서울라이트'

〈겨울 빛 축제〉

DDP 개관 이래 최대성황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8년비 방문객 59% 증가
작년 12월 31일 25만명 방문
포럼·이벤트 등 콘텐츠 다양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축제에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DDP를 찾은 방문객은 86만660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9% 늘었고, 2017년 방문객(39만8285명)대비 118% 급증했다.

방문객은 DDP 주요 길목에 설치된 CCTV 18대에 포착된 인원으로 산출했다. CCTV가 없는 DDP 상부 디자인 거리와 주변 유동인구를 하루당 약 1만명으로 추산해 총 방문객을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라이트는 대표 콘텐츠인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 문화공연과 마켓, 서울라이트 포럼·워크숍, 이벤트, 전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커다란 선물 박스로 변신한 DDP 외벽. /서울시

푸드트럭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함께 선보인 겨울 빛 축제다.

DDP 외벽 전체가 커다란 선물 박스로 변신한 크리스마스 시즌(24~25일)과 2020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특별 영상쇼가 있었던 31일에는 시민, 관광객 등 총 25만명이 방문해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울라이트를 정례화해 겨울철 대표 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자체 개발한 디자인 제품

을 동대문 일대 디자이너,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서울라이트와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라이트는 DDP의 굴곡진 은빛 외벽에 빛과 영상 그리고 음악이 결합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쇼였다"며 "올해에는 더욱 역동적이고 재밌는 서울라이트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설 기차표 예매하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설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인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앞에 열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성평등기금 사업공모...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 여성 사회참여·권익 향상 추진

서울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 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과 대응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3개 분야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10억원이며 개별 사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지원 가능하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14일 오후 3시 신청자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48개 단체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단속제, 3개월만에 '페이퍼컴퍼니' 30% 차단

경기도 '공정 건설환경' 조성
적발 업체 행정처분·고발조치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 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식이다. 지난해 10



경기도 2020년 시무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받을 못 불이게 한 결

과, 3억 원대 토목공사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 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하여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오는 10월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 이유에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80억 투입 '산불진화헬기' 20대 운영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

경기도는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0억 원을 투입,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6대 중 30%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지난해 경기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172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26%를 차지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41ha로 전국 3,255ha 대비 약 1%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았고, 캠핑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해 산불발생에 취약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25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도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방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도는



경기도내 20개 시군에 배치되어 운용중인 산불진화헬기. /경기도

올해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산불진화헬기 20대를 분산배치해 산불발생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골드타임제'를 운영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금융]
KB금융그룹
“경영 키워드 ‘L.E.A.D’
M&A 적극 추진”
08

[라이프]
롯데멤버스
“국내서 쌓은 포인트
동남아서 쓰세요”
L1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북측 지하보도에 마련된 ‘태양의 정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회색 역사가 초록빛으로... 지하 속 오아시스 ‘태양 정원’

되살아나는 서울

99 종각역 ‘태양의 정원’

매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람들이 득시글거리는 역이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이다. 제야의 종을 울리는 보신각이 역 인근에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우중충하고 삭막했던 종각역에 산뜻하고 싱그러움 식물이 생겼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종각역 지하 유희공간 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호선 종각역에서 종로서적으로 이어지는 길을 정원으로 재생해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듬해 2월 공사를 시작해 10월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돼 작년 12월 문을 열었다.

지하 동굴 속 작은 정원은 자연채광 제어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 지상의 태양빛을 원격 집광부로 모아 특수 제작한 렌즈에 통과시키면 빛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역사 안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햇빛을 지하로 전송해 비좁으므로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지하 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초록빛으로 물든 종각역

지난 6일 오후 태양빛이 스며든 종각역을 찾았다. 태양의 정원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와 3-1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잿빛 콘크리트로 상징되던 북측 지하보도에 녹색 식물들이 옹기종기 심어져 싱그러움을 내뿜고 있었다.

이날 태양의 정원을 방문한 전필수(70) 씨는 “밝은 부슬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어두운데 이



지난 6일 오후 시민들이 종각역 태양의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종각역 지상에 설치된 8개의 집광부 장치. /사진=김현정 기자

지난해 12월 종각역 지하정원 개방 자연채광 제어기술로 정원 조성 흐린 날엔 LED 조명으로 자동전환

실버레이디·극락조 등 식물 37종 소규모 무대·창업 홍보 공간도

곳은 환해서 좋다”며 “지하에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참 고맙다”고 말했다.

도심 속 지하 정원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붉은색 포인세티아 꽃 한 무더기와 고사리처럼 생긴 풀 ‘실버레이디’, 큰 타원형 잎이 인상적인 ‘극락조화’, 주황색 유자가 듬성듬성 달린 ‘유자나무’ 등 37종의 식물이 심어졌다.

전 씨는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면서 “마음 씩씩이가 참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종각역 지상에는 가로등처럼 생긴 8개의 집광부 장치가 설치됐다. 이 시설은 태양의 궤도를 추적해 효율적으로 빛을 모은다. 여기서 채집된 빛이 지하로 전달돼 식물이 자

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한파나 미세먼지 등 외부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지하에서 자연의 태양광을 느낄 수 있다”며 “흐린 날엔 자동으로 LED 조명으로 전환돼 날씨와 상관없이 일정 조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태양의 정원 조성 관련 기본구상 용역에는 미국 뉴욕의 지하공간 재생 사업인 로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 제임스 램지(라드 스튜디오) 건축가가 참여했다. 설계와 공사 과정에는 로라인의 태양광 채광 기술을 맡은 한영 합작 벤처기업 선포탈이 함께했다.

대학생 황모(24) 씨는 “전에는 빛 한점 안 들어오는 어둡고 무서운 곳이라서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면서 “오랜만에와 봤는데 예쁜 꽃과 나무가 많고 조경이 잘 되어 좋다”며 활짝 웃었다.

녹지공간 뿐만 아니라 계단을 리모델링한 객석도 만들어졌다. 시는 이곳에서 각종 교양강좌나 소규모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원 한편에는 유리로 된 부스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흥

보, 판로,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하 정원, 다른 역에도 생겼으면

한편 이날 태양의 정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하 정원이 다른 공간에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임상채(78) 씨는 “친구들과 헤어지기 전에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어 마음에 든다”면서 “대림역도 정말 넓고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거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평소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통로 역할에만 머물러 있던 종각역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2017년부터 고민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지하공간으로는 드물게 넓고 천장이 높은 광장 형태로 조성된 점, 지상부에 광장이 있어 일조 환경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해 ‘자연광을 이용한 지하정원’으로 조성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연신내에서 온 정의덕(77) 씨는 “이런 지하 정원은 우리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역에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무임교통카드 데이터 575만 6258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하철역은 종로3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량리, 제기동, 고속터미널, 연신내, 사당역 순이었다.

시는 ‘자연광에 의한 지하정원’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지하정원 R&D(연구개발) 허브를 목표로 국내·외 정책 수출 가능성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